

연구총서 01-27

•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조한범

통일연구원

러시아의 급진적 체제전환은 점진적 방식의 중국과 다른 특성을 보이며, 러시아사회에 복합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었다. 러시아 사회의 경우 개혁으로 인한 급진적인 사회변화와 구 체제의 요소들의 지속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인 행정-명령경제체제는 경제영역에서 노동에 대한 자발적인 자극을 배제하는 것이었고,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주의체제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소련경제의 경험은 말해주듯이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경제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소련의 사회적 불평등은 전반적인 동질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달랐지만, 이는 새로운 특권층의 탄생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사회주의의 경험은 사회주의 사회에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인성체계를 발달시켰으며, 이는 자본주의경로를 거친 사회의 특성과는 상당부분 대치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경제가 남겨놓은 결과물들의 영향력은 의외로 강했고, 개혁의 효율성은 좀처럼 발휘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의 변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은 급진적인 특성들을 지닌 것이었으며,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인 특성들을 나타냈다. 특히

초기의 경우 자유화와 사유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 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 등 부정적인 특성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이룬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근대화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시장경제에 기초한 새로운 특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 및 부정적 특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한다. 구체제에서 형성된 수많은 특성들은 새로운 체제건설과정에서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활 세계의 주인인 러시아인들의 일상적 삶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정치구도는 시장경제로의 체제변환과정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의 체제변환과정은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했고, 기존구조의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및 사회적 갈등은 러시아 정치현실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체제전환 시작이후 러시아의 선거 과정에 나타난 특성인 좌익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부각의 원인은 대내적으로는 진행된 급진적 개혁의 결과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과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지위의 하락에 따라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했다. 푸틴 체제의 등장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지친 러시아인들의 잠정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사회주의 계층구조는 러시아의 개혁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특징적 측면은 소수의

부유층형성과 계층구조의 전반적 하향화경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궁핍화가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게되고, 계층구조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러시아체제전환의 핵심인 자유화와 사유화는 과거의 생산관계에서 축적된 다양한 능력과 연출관계를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이들중 상당수는 체제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와해와 함께 궁핍화를 강요당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체제전환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체제에 기반한 러시아의 새로운 중간계급의 형성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사회의 해체와 시장체제로의 급격한 체제전환과정은 ‘폴뿌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이 특권을 사적부분으로 전이시키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시켰다. 노멘클라투라들이 체제전환기 국유재산을 자신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기반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점유한 클렙토클라투라(kleptoklatura)로 변화했던 것이다. 노멘클라투라 출신들의 기업가들은 사업능력보다는 정치적인 능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올랐으며, 이들의 등장은 정직하고 재능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로 변신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기 경제생활에 있어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는 지하경제에 관한 것이며,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의 이해에 있어 ‘마피아 현상’이 특징적인 것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마피아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사회주의시기의 구조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시장체제로의 체제전환기에 놓여있다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 체제전환기의 지하경제화 혹은 마피아경제현상은 건전한 시장경제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로 등장한다.

북한변화에의 함의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보수파들의 반발과 저항이 발생할 것이며, 전환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엘리트층들의 지대추구행위와 부패가 체제전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탈중앙화과정은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의 지하화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은 새로운 경제주체의 형성과 아울러 소외층들을 형성시킬 것이고 이들의 반발은 공산주의체제의 복구와 국가주도 경제체제 및 사회주의복지체제에 대한 회귀라는 이념적 지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양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좌파세력이 주요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 체제개혁의 함의들은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상의 특수성, 특히 북한사회주의의 발전정도와 산업구조는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한의 존재는 경우에 따라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II.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4
1.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	4
2. 불평등체제	8
3. 사회주의체제의 인성	13
III.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의 변화	19
1. 체제전환형태: 급진적 형태와 점진적 형태	19
2. 급진적 체제전환과 러시아 사회	25
3. 정치구조의 재편	32
4. 계층분화	46
5. 엘리트 연속성	53
6. 지하경제화	57
IV. 북한변화에의 함의	71
V. 결론	79
참고문헌	81

- 표 목 차 -

< 표 1 > 국민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정부의 형태	37
< 표 2 > 러시아 제3대 총선 결과	42
< 표 3 > 러시아 제2대 대선 결과	44

I. 서론

구 소련의 해체와 이후의 급격한 체제변화는 상이한 체제로의 체제 전환이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그 결과는 세계체제의 차원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시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사회 자체가 대규모의 ‘사회과학적인 임상실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구, 러시아사회의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과 그 결과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사회주의 사회에 관한 연구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아울러 종료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경우에도 러시아사회의 탈 사회주의화 과정의 경험은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체제 전환기 러시아사회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일반적인 사회변화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러시아 체제전환기의 사회변화는 구 체제의 해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와 그 속성이 다르다. 사회에 있어서 변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미리 정해진 전략에 따라서 전 사회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산업화와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점진적 방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중국과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급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한 러시아의 경우는 구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기 사회변화의 이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구체제의 유산이다. 탈 사회주의전환과정에서 시장체

2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제로의 전환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서구의 경우 경쟁과 혁신,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주의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점진적인 자본주의화 과정을 거친 노동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 기업은 중앙집권화된 체제에서 발전했고, 경제행위에서 자주성과 시민권차원의 자유가 부재했다. 사회구조 역시 중앙집권화되었고, 위계적인 것이었다. 사적소유가 금지되었음과 아울러 경제는 전적으로 국유화되어 있었다. 행정-명령 체계와 정치적인 요소의 과도한 억압은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무력감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성은 특유한 인성형태를 잉태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국가의 보호에 익숙한 ‘국가의존형 노동자’와 ‘사회주의 기업지배인’을 탄생시켰다. 시장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는 합리적 기업 문화와 노동문화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노동자와 기업가들은 구 체제에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시장체제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려웠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러시아사회에 복합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는 과정이다. 체제전환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적 변화과정인 것이다. 구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는 현존했던 사회주의 발전모델에 있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변화를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은 구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지배체제, 계급구조와 사회체제와 같은 구조적인 영향들이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의도했던 급진적 개혁의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의 경우 개혁으

로 인한 급진적인 사회변화와 구 체제의 요소들의 지속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기 사회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과 구 체제의 특성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적응하는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은 스탈린주의 공업화와 체제를 구축했던 북한사회의 향후 변화와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현상의 이해와 예측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이며, 향후 남북한사회의 통합과정에도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위기도 궁극적으로 시장체제의 도입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사회변화는 북한사회의 변화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1.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사회의 분석은 행정-명령체제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장기간의 사회주의경험은 자본주의와 다른 노동자와 기업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수한 인성들을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점은 포스트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주민들은 모든 삶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체제에 종속되어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름 하에 모든 분야에서 우선적인 힘은 국민이 아닌 국가에 놓여 있었다. 소유와 자원은 국가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고, 개인들의 권리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모든 경제적인 결정은 동시에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행정-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가기구가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영역에서 노동에 대한 자발적인 자극을 배제하는 것이었고,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주의체제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소련 경제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경제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주의의 마지막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진해버렸다.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생산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원의 무절제한 이용과 함께 토양의 비옥도는 저하되었다. 가장 우선적인 생필품조차 공급받지 못할 정도의 생활수준과 노동에 대한 자극의 결핍은 사회주의 사회전

반에 걸친 물리적, 사회적인 하향화를 초래했다. 이 결과 소련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고, 대안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회주의경제가 남겨놓은 결과물들의 영향력은 의외로 강했고, 개혁의 효율성은 좀처럼 발휘되지 않았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험을 가진 사회가 전체적인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장기적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¹⁾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와 특성은 다르지만 공업화와 발전이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전근대적인 질병들이 사라졌으며, 삶의 수준은 일정정도 향상되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문맹이 사라졌고, 대학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체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 졌고 GNP는 상승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들이 인간의 발전이라는 점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람들은 계획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졌으며, ‘계획’은 개인들에게 법률이었고 위로부터 강제되었다. 정치적인 권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계획’으로 형상화된 국가의 요구는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했으며, 따라서 개인들은 배제되었다. 개인들의 발전은 이데올로기차원에서의 구호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발전이 보다 중요했다. 계획상의 모든 수치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존재로서의 발전은 그것이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이었다. ‘풀뿌리’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었으며, 시민사회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1) 조한범, “이행하는 사회주의,” 박길성 외, 『현대사회』 (서울: 나남, 1996), 10장.

주민들은 발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으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전’했다.²⁾ 이와 같은 사실들은 포스트 사회주의의 주민들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의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20세기의 경제적인 진보는 단지 시장경제만이 경제의 높은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³⁾ 러시아 학술원 회원인 아발킨의 지적처럼 러시아의 개혁초기에 시장경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대중적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확산되어 있었다. 시장경제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러시아는 구 체제에 대한 그 어떠한 “충격”을 통해서라도 시장기제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상황은 아주 달랐다. 사회주의시기에는 자유 시장경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고, 시장경제에 관련된 주제는 학문의 영역으로부터 전적으로 제외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80년과 90년의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는가? 장기간 러시아를 지배했던 사회주의가 남겨놓은 결과물들을 고려한다면 대답은 어렵지 않다. 70년 이상의 기간동안 소련의 국민들은 모든 삶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체제에 종속되어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름하에 모든 분야에서 우선적인 힘은 국민이 아닌 국가에 놓여 있었다. 소유와 자원은 국가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고, 개인들의 권리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모든 경제적인 결정은 동시에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행정-명령이라는 방법을

2) “The Concept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http://sun.nilb.ee/undp/nhdr/CH1.html>, pp. 2~3.

3) Л. Абалкин, “Что мешает реформе?”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апрель 1990).

통해서 국가기구가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영역에서 노동에 대한 자발적인 자극을 배제하는 것이었고,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주의체제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다.⁴⁾ 그러나 소련경제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경제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소련의 마지막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진해버렸다.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장기간 생산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원의 무절제한 이용과 함께 토양의 비옥도는 저하되었다. 가장 우선적인 생필품조차 공급받지 못할 정도의 생활수준과 노동에 대한 자극의 결핍은 소련사회전반에 걸친 물리적, 사회적인 하향화를 초래했다.⁵⁾

경제학자인 베셀코프는 소련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간 행정-명령경제체제의 7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첫째, 기업들은 보다 적은 계획생산량을 할당받으려 노력했고, 반대로 보다 많은 장려금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노동자들은 가능한 한 노르마(작업할당량)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셋째, 과학-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기업들이 무감각했다.

넷째, 생산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메커니즘은 낭비적이었다.

다섯째, 기업들이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4) Э.Ф. Борисов,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оциально политический журнал*, No. 3 (Москва, 1993), p. 75.

5) Г.П. Черник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кто он?*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2), p. 190.

여섯째, 발전과정에서 방만한 경제체제를 밀도있는 집중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무관심했다.⁶⁾

이 결과 소련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고, 대안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회주의경제가 남겨놓은 결과물들의 영향력은 의외로 강했고, 개혁의 효율성은 좀처럼 발휘되지 않았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매우 복잡적이고 긴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사회가 전체적인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서는데는 장기간을 요하게 된다는 전망이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사회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2. 불평등체제

사회주의체제의 불평등 및 계급·계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어왔다. 그 하나는 주로 사회주의체제 내부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체제의 평등화 경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자본주의적 계급구조가 소멸하고 새로운 생산관계에 따라서 불평등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며, 불평등의 성격도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지 않은 과도기적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공식적 입장과는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학문의 관변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는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6) Ф.С. Весельков,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p. 19~21.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평등화의 경향과 계급간의 비 모순적 관계에 대한 논의들만이 허용되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사회주의 내부의 견해를 부정하는 반대의 논리를 함축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체제에도 체계화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에서도 불평등은 소멸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사회주의 체제의 외부, 즉 자본주의권에서 제기되어왔다.

사회주의체제의 불평등의 정도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체제의 불평등이 일정정도 존재하고, 그 구조가 자본주의사회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사유재산을 금지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계급구조를 소멸시켰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적 속성을 가지는 불평등체제는 존립근거를 상실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의 부와 권력에 대한 제도적 통제권은 자본가가 아닌 또 다른 특정인들에 의해 점유되었다. 이는 불평등의 또 다른 기원으로 작용했으며, 사회주의적 계층화를 가능케 했다. 사회주의체제의 계층화의 기원은 정치권력의 관료제적 특성과 분업에 의해 파생된 역할구조로부터 비롯된다.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특성은 특정인들이 권력과 위신 그리고 특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위계체제를 만들었다. 평등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사회의 이상적인 가치였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그 자체가 이와 같은 이상의 달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⁷⁾

사회주의체제 전반 특히 소련에 있어서 불평등 및 사회의 계급·계층

7) David Lane,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p. 159.

구조의 이해에 있어서 주목해야할 점은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의 동질화’와 ‘새로운 특권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경향이 사회주의체제에 병존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회주의 정치·경제·사회체제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났다. 소련사회의 계급구조변화과정은 대체적으로는 사회적 동질성의 증가경향과 관련이 있었다.⁸⁾ 따라서 소련사회의 사회분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계급·계층 분화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소련사회의 불평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체제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주요한 사회집단들 사이에 기능적인 전문화를 낳는 생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과는 다르게 비대립적이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은 기술이나 가격 및 기능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분배를 결정하는 중앙계획의 결정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불평등의 범위는 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작다. 셋째, 사회주의의 특권 정치엘리트층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특권을 다음세대까지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가계급과 같은 폐쇄성을 지니지 않는다.⁹⁾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불평등과 특권은 자본주의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자본주의적 계급구조 소멸의 결과 소련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표면

8) 1968년과 1978년, 10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조사된 소련의 타간로그시의 조사결과는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10년 동안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아서 1968년의 경우 미숙련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이었던 기업체간부와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978년에는 각각 1,2배와 1,5배로 하향 조정되어 평균화경향을 나타내고있다. 학력간의 임금격차도 작아서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평균임금간의 격차를 거의 나타내지 않고 있다. L. I. Abalkin, *People's Well-Being in the USSR: Trends and Prospect* (Moscow: Nauka, 1989), pp. 34~38.

9) H. Davis, R. Scase, *Western Capitalism and State Socialism an Introduction*.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서울: 느티나무, 1985).

적으로는 공동소유의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에 대한 관리권이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었으며 그 자체가 고용주인 국가의 피고용인으로 변했다. 사적 소유가 사라진 소련사회에서 계급형성의 조건과 결정요소는 더 이상 소유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경제에 스며든 행정-명령관계였으며, 정책과 법률적 관계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국가는 이와 같은 행정-명령경제체제에서의 통제를 위한 국가관료층을 필요로 했다. 사회구성원들은 소유관계에 기초한 계급관계가 아니라 생산체계내의 기능적 전문화에 의해서 위치 지워졌으며, 이에 따른 사회주의 계급내부의 분화상태가 형성되었다. 자본주의와 다르게 사회주의에서는 기능의 분화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계급간의 경제적 갈등을 정치영역으로 변화시킴으로서 비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지만 이러한 기능적인 차이들이 권력이나 특권 그리고 위신상의 각종 불평등의 기반으로 작용했다.¹⁰⁾

따라서 소련사회는 사회의 동질화와 아울러 사회주의체제 형성 초기부터 고유한 또 하나의 특권층을 형성했다. 사회주의의 행정-명령 계획체제는 복잡한 중앙집중적 관료체제를 형성했고, 관료체제의 각 단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명령을 집행할 관료적 지위들을 양산했다. 평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위들 자체가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권과 처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관료들은 형식상으로 국가의 대리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소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을 감독할 국가 역시 이들 내부의 인적구성원들로 채워졌다. 사유재산이 사라진 사회주의체제에서 통제권은 곧 특권과 부를 의미했다. 소련의 지배엘리트들은 권력

10) *Ibid.*

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대(rent)를 극대화시켰다. 새로운 독재체제에서 지배엘리트들은 대의정부체제에서 보다 더 많은 부를 전유할 수 있었다. 지배엘리트들은 국가의 예산과 희소가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고액의 보수와 지위에 따른 특권을 손쉽게 획득했다.¹¹⁾

계획경제와 통제체제속의 관료체제는 소련사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치엘리트들은 이러한 체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소련사회는 자본가계급의 근절과 더불어 통제를 위한 관료층을 낳게 된 것이다. 밀로반 질라스의 ‘새로운 계급’¹²⁾이나 보슬렌스키의 ‘노멘클라투라’¹³⁾는 모두 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사유재산에 기초한 부르주아와는 그 기초가 달랐지만 이들은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주의사회의 특권계급인 노멘클라투라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특성상 엘리트들의 손에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두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특권을 향유했으며, 이에 따른 불평등이 사회 내에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이다.¹⁴⁾

11) J. Winiecki, *Resistance to Change in the Soviet Economic Syste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p. 3.

12) М. Джилас, *Лицо тоталитаризма* (Москва: Новости, 1992).

13) 노멘클라투라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이나 기술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명칭(총체)이나 용어의 체계, 둘째, 상징의 추상적이고, 제한된 체계로서 대상의 의미를 지칭하기 용이한 것이다. 소련에서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노멘클라투라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이 용어는 “가장 중요한 직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으로서 소련사회의 특권계급을 의미했다. М. Восленский, *Номенклатура*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и Октябрь, 1991), pp. 12~14. 행정-명령경제체제에서 중요한 관료적 지위들은 이 직위를 임명에 관계되는 중요 인물들의 추천과 이에 대한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 이와 같은 임명과정과 그 결과 형성되는 폐쇄적인 특권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4) R. Sakwa, *Soviet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89),

초기의 경우 노멘클라투라는 핵심정치엘리트들을 지칭하였으나 이후 산업부분과 농업부분, 교육, 학술부분 등 각 분야의 고위담당자들을 포함하는 소련의 특권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 소련사회의 형성에서부터 위계적 조직형태로 시작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 사회의 위계적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권력계층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국가소유권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실현시키는 계층이었다. 그와 동시에 사회의 나머지 대다수 구성원들은 경제적,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다.¹⁵⁾

가족을 포함해서 인구의 약 1,5%를 차지했던 노멘클라투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수입이외에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특권을 누렸으며 지위를 사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기초한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불평등과 특권층이 소련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⁶⁾ 노멘클라투라들은 다양한 차별적 특권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만성적인 부족상태로부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3. 사회주의체제의 인성

장기간에 걸친 사회주의의 경험은 사회주의 사회에 고유한 특성들을 결과시켰으며, 이는 자본주의경로를 거친 사회의 특성과는 상당부분 대치되는 것이었다. 스톱카(Piotr Sztompka)는 사회주의 사회

p. 226.

15) О. И. Шкратан, и тд,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Мир России*, Т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p. 73.

16) М. Восленский, *Номенклатура*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и Октябрь, 1991), pp. 279~284.

에 형성된 고유한 특성을 문명적인 비적응력(civilizational incompetence)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문명적인 적응력(civilizational competence)과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발달된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는 자본, 기술, 하부구조, 숙련노동력, 확고한 중산층, 효과적인 대시민봉사능력, 전문적인 정치엘리트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가시적인 필수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덜 가시적인 문화적인 요소인 문명적인 적응력이 경제, 정치, 사회의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네 가지 영역에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경제의 참여에 필수요소인 기업가문화이다. 두번째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위한 시민문화이다. 세번째는 자유로운 지적교류를 위한 담화문화이며, 이는 인내, 개방, 다양성과 분화의 용인, 회의론과 비판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진보된 도시적이고 기술지향적인 소비자사회의 일상적인 문화이며 간결성, 청결, 질서, 기능성, 건강지향, 기계장치들의 운용능력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경험은 이와 같은 요소들의 형성을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성인 문명적인 비적응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¹⁷⁾ 명령지향형

17)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 5. 월더(Walder)는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신 전통주의(communist neo-traditionalism)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전통사회의 특성(종속, 복종, 특수주의)들을 근대성(자율성, 계약, 보편주의)으로 대체해 나가지만 사회주의체제는 과거의 전통사회의 특성과 유사한 측면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전통주의적 특성들은 전통사회의 연장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 전통주의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월더에 따르면 시장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주의에 특수한 고용관계와 기업,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조직들의 특성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고유한 구조적 속성들이 신 전통주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

경제는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가능성을 마비시켰으며 정치적인 독재는 대중들을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정신의 형성을 막았다. 결핍경제와 빈곤은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특성이었다. 사회주의에 고유한 특성들의 형성에는 세 가지 주요한 기제가 작용했다. 첫째는 사회주의적 선전을 통한 직접적인 주입식 교육(direct indoctrination)이다. 이에 따라 원시적인 평등주의와 국가로부터의 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서 노동계급에 의한 ‘지배적인 정치적 역할’이 요구되었고 정당화되었다. 두번째는 강압적인 국가기구들을 통한 전체주의적 통제이다. 전체주의적인 통제는 결과적으로 기회주의와 맹목적인 동조, 결정의 회피, 개인적인 책임의 회피 등을 야기하며, 이와 같은 결과들은 국가의 가부장적 특성과 결부되어 사회주의 주민들에게 ‘발육부전(prolonged infantilism)’증후군을 야기했다. 세번째는 주입식 교육과 전체주의적인 통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발전시킨 방어유형들이다. 이러한 방어 유형들은 법률에 대한 무시, 규칙에 대한 제도적인 회피, 권위에 대한 불신, 전통에 대한 강조, 서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이 포함된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증가함과 아울러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유사한 효과들이 나타났다. 독재적인 규율에 저항하는 모반과 논쟁들이 사회의 상당부분을 기이한 문화적 환경으로 이끌어갔지만 이는 문명적 적응력의 형성에 기여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사회주의가 결과한 특성들을 강화시키고 말았다. ‘우리’와 ‘그들’ 그리고 ‘동지’와 ‘적’ 사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전투적인 분위기는 사회적 관용을 마비시켰다.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이데올로기는 독단주의를 배양했으며, 타협은 반역으로 취급되었다. 결국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대립구도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필요로 하지만 대개의 경우 카리스마적

치는 요소들이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대성’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A.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p. 1~27.

지도력은 민주주의의 형성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¹⁸⁾

사회주의경제의 특성도 주민들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완전고용제도이다. 공산당의 강령과 사회주의의 헌법은 실업의 철폐와 완전고용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는 의식적인 활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주의체제의 의도적이고 강요된 산업화과정의 부수효과라는 특성을 지녔다. 사회주의체제는 급속한 성장을 달성해야했으며, 이를 위해서 잉여 노동력을 흡수해야 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사회주의체제의 초기적인 특성은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외연적 방식을 채택하도록 만들었고 따라서 사회주의체제 형성 초기의 잉여노동력은 공업화과정에서 모두 국가부분으로 흡수되었다.

사회주의체제는 완전고용이 완성되기까지는 동원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부분적인 노동력부족현상도 수반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노동력부족은 구조적인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급속히 성장하는 부분 특히 공업부분은 숙련노동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잉여노동력은 대부분 비숙련노동이었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은 특별한 자질을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숙련노동자와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 경험있는 경영자들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둘째 노동력부족은 주로 도시에서 발생했던데 비해서 잉여노동력은 농촌에 집중되어 있었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수용할 기반시설이 필요했으나, 이와 같은 요구는 정책적으로 이차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었다. 셋째, 지역간의 불균형발전도 노동력부족의 원인이다. 특정지역은 급속히 발전

18)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p. 5~6.

하며 새로운 노동력을 요구하지만 잉여노동력은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회주의에서 완전고용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노동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고용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비고용상태에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일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식적으로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대가족의 주부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잠정적인 실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의 혹은 타의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상 즉각적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에 기초한다. 생산과 노동에 대한 재할당은 관료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강요되지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 따라서 노동력부족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만성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완전고용 상태하에서 피고용 대상자들은 어렵지 않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쉽사리 충족되기가 어렵게 된다.¹⁹⁾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완전고용과 만성적인 노동력부족현상은 노동자들에게 상당부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성은 특유한 인성형태를 잉태했다. 소련내부의 학자들에 의한 노보시비르스크시의 조사(1983)는 소련경제체제가 형성한 노동자들의 가장 현저한 결점은 양심, 근면성, 성실, 책임, 신뢰성, 노동에 적합한 기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위험(risk)의 계산 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련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존형(state-dependent)’이라는 점이며 두 가지 근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의존형이라는 특성은 기술연마와 생산성보다는 노동기

19)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New Jersey: 1991), pp. 211~216.

피를 하는 노동윤리와 노동행태,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노동에 대한 경멸, 자주성과 위험(risk)에 대한 무능력과 회피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항상 성취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보다 관심을 두며, 안전은 개인이 지니는 필요의 충족에 대한 전망보다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해서 규정된다. 다른 한편 국가주도형 경제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보상은 국가주도형 노동자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직업이 유용하다는 점과 안전을 보장 해주며 미리 고안된 계획에 따라서 선택된 몇몇 사회집단들에게 이익과 특권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보호자라는 것이다.²⁰⁾ 따라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국가의 역할축소와 사회주의형 복지체제의 축소를 가져오는 시장경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점들은 객관적인 경제행위들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그것을 배태하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경제사회학의 원리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20)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45~46.

Ⅲ.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의 변화

1. 체제전환형태: 급진적 형태와 점진적 형태

각 국가들이 가지는 특수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첫째, 소유권 행사의 지배적 형태로서의 집단적 소유화. 둘째, 자원분배의 우선적 기체로서의 중앙집중적 계획. 셋째, 경제부문에 있어서 공업분야 특히 중공업분야의 선호와 서비스부문의 제약. 넷째, 농업의 집단화.²¹⁾ 사회주의 경제체제개혁은 이와 같은 특성들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소유권의 지배적인 형태인 집단적 소유권은 민영화과정을 거치거나 자율적 자본형성과정을 통해서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분배의 독점적인 힘이었던 계획은 시장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대체된다. 또한 시장체제에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경제의 절대적 종속현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제의 자율적 조절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이 실시한 경제체제개혁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를 보였다. 첫번째는 ‘점진적인 경제체제개혁’이다. 이는 시간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부분적인 범위에 제한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으로 지칭된다.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은 경제성장형(growth-led transformation)의 경향을 보이며, 중국 등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비국영 기업의 급속한 증가와 국유부문의 상대적 축소로 특징지워지는 개혁

21) J. Sachs & Wing Thyee Woo, “Experiences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 271.

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 성장형 개혁과정에서 사기업 혹은 준 사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점차 국유기업을 능가할 것으로 믿어졌다. 두번째는 ‘급진적 경제체제개혁’으로서 단기간에 전반적인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개혁은 단기간에 구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장요소들을 이식하며, 개혁의 범위도 경제체제전반을 포괄한다. 급진적인 개혁의 시행자들은 자유화와 거시경제의 안정화조치를 실시하고 사유화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듯이 단기적으로는 경제후퇴형(recession-led transformation)의 경향성을 보였다.²²⁾ 성장형과 비교했을 때 전면적인 재구조화과정에서 일시적인 생산의 감소와 경기후퇴, 그리고 국유기업의 급속하고 광범한 축소가 발생한다.²³⁾

삭스(J. Sachs)와 립튼(D. Lipton)을 비롯한 급진론자들²⁴⁾은 충

22) 경제성장과 후퇴의 경향은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1993~1994년에 이미 부분적으로 체제 전환기의 경기후퇴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전환기의 경기후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가지게 했으며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경제후퇴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p. 60.

23) Minxin Pei,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pp. 131~132.

24) 급진적인 경제체제개혁을 주장하는 논의는 다수가 있으며, 여기에는 D. Lipton & J. Sachs, “Creating a Market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2 (1990). J. Sachs & D. Lipton, “Poland’s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 69, No. 3 (1990). J. Kornai,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W.W. Norton, 1990). A. Aslund,

격요법(shock therapy) 혹은 빅뱅(big bang)²⁵⁾으로 불리는 급진적 개혁만이 사회주의경제의 체제전환에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급진론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급진적인 방식이 필요한 이유들로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 전체적인 개혁의 요소들은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둘째, 시장의 형성으로 사회주의체제가 구축한 강력한 관료제도와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체제개혁은 새로운 체제가 구체제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게 빠른 속도로 동시에 그리고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부분적인 개혁은 구체제의 요소들을 온존시키게 된다. 넷째, 새로운 경제규칙들과 제도들은 혼돈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히 그리고 단호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주의적 체제전환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개혁정책의 실시를 주장한다. 첫째, 전반적인 가격자유화를 단행한다.²⁶⁾ 둘째, 화폐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평가절하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대외경제 관계를 자유화한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거시경제정책 등을

Post-Communist Economic Revolutions: How Big a Bang?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2) 등이 있으며, IMF, World Bank, OECD, 그리고 EBRD 와 같은 서방의 국제시장 경제기구들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 25) 급진적인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변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빈번히 인용되는 충격요법과 big bang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충격요법은 big bang의 부분적인 요소로 사용되어 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반대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한다. Ian Jeffris,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London: Routledge, 1993), p. 333.
- 26) 폴란드에서는 1990년에 이미 국유부분의 임금과 에너지가격만이 통제를 받았으며, 러시아의 경우 1992년 1월 대규모의 가격자유화가 실시되었다.

통한 안정화정책을 채택한다.²⁷⁾ 넷째, 생산과 투자결정의 분권화와 사적 경제활동의 합법화, 그리고 사유화를 실시한다.²⁸⁾

급진적인 경제체제전환론은 동시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중심적인 비판은 구체제의 유산을 물려받은 국가들이 단기간에 시장 체제를 형성하고 경쟁체제에 적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형성한 구조적인 특성들(노동에 대한 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도 일시적인 처방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급진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은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적인 재편을 가져오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만든다. 이 과정은 전 사회적인 궁핍화를 수반하고 결과적으로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의 토대로 작용한다.²⁹⁾ 체제전환의 속도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된다. 3~5년 사이의 짧은 기간에 서구적인 의미의 시장경제체제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또한 급진적인 체제전환론에서 주장하는 개혁정책들의 우선 순위 부여도 논란거리이다.

점진적인 체제전환론을 옹호하는 논자³⁰⁾들은 경제체제전환은 일정

27)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의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안정화정책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들에 대한 연성예산편성(soft budget)을 중지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독점을 해체하고 이들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경쟁체제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28)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 277.

29) 동구와 러시아의 경우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적인 민주화가 경제개혁과 동시에 수반되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입된 선거제도는 역설적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90년대에 치러진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개혁에 비판적인 좌파와 민족주의세력이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했고, 결국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30) 점진주의론의 입장을 견지하는 논의들에는 Peter Murrel의 "Evolut

한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의 논지에 따르면, 경제체제개혁은 구경제구조의 점진적 해체, 사적경제활동의 장려와 점진적 사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경제체제개혁의 핵심은 사회주의경제의 틀을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시장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국유부문과 사유부분으로 나누어진 이중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점진적 체제개혁은 초기에 구체제의 변화를 피하면서 시장경제요소들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을 집중시킨다. 이와 같은 초기단계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가속화한다. 새로운 시장경제부문이 충분히 성장한 후에는 그 스스로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경제부문에서 성장한 인적·재정적·사회적 자원들은 국유부문의 사유화와 개혁에 이용되어진다. 시장경제의 성장은 상응하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는 경제체제개혁에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유화는 개혁 초기에 사유화되었을 경우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³¹⁾

-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과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가 있으며, G. Calvo & J. Frenkel, “Credit Markets, Credibilit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S. Fischer & A. Gelb,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R. Mckinnon, “Taxation, Money, and Credit in a Liberalizing Socialist Economy,”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J. Hausner, B. Jessop and K. Nielso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Edward Elgar, 1995) 등이 있다.

31) Peter Murrel,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 p. 125.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바람직한 전환유형과 이를 위한 개혁정책의 형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혁이 점진적 혹은 급진적이어야 하는지, 개혁정책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만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체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급진론과 점진론의 차이는 다분히 이론적인 수준의 논의이다. 이들은 이론적인 수준에서도 각 입장마다 통일된 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각국의 개혁정책은 점진적 개혁정책과 급진적 개혁정책이 다소 혼합된 형태로 실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론과 점진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과 개혁정책의 분석에 유용한 이념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은 급진적인 특성들을 지닌 것이었으며,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인 특성들을 나타냈다. 러시아에서는 1992년 초의 가격자유화를 필두로 자유화·안정화·사유화 등의 정책들이 급진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초기의 경우 자유화와 사유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 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 등 부정적인 특성들이 최근까지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는 점진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시행된 중국의 개혁은 러시아에 비해서 서비스, 농업, 수출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점진적 경제개혁과정이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구 사회주의체제가 중국의 개혁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선택한 것은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목표가 상이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내부의 개혁이 아니라 최종적으

로는 완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국지도부는 개혁의 최종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³²⁾ 따라서 중국의 점진주의적 개혁은 특별한 이론적 기반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이와 같은 양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교착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2. 급진적 체제전환과 러시아 사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의 해체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과제의 수행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저발전 상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점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며, 사회주의적 발전과 공업화의 수준도 구 소련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쳐져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사회주의적 외피속에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진행시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게 된다. 고도 성장과 도시화, 핵가족화, 소비생활의 비약적 발전 등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수반하게 된다.

32) 중국의 스탈린주의세력은 새(경제)는 새장(계획)이 없으면 날아가 버린다는 '새장경제론'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반면 개혁세력은 시장경제론을 주장했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가 중국에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Wing Thye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p. 279~280.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이룬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근대화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시장경제에 기초한 새로운 특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해체에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가 다른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 및 부정적 특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한다. 구체제에서 형성된 수많은 특성들은 새로운 체제건설과정에서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활세계의 주인인 러시아인들의 일상적 삶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러시아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건들은 서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구의 경우 경쟁과 혁신,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주의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장기간의 자본주의과정을 거친 노동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러시아의 경우 기업은 중앙집권화된 체제에서 발전했고, 경제행위에서 자주성과 시민권차원의 자유가 부재했다. 사회구조 역시 중앙집권화되었고, 위계적인 것이었다. 사적소유가 금지되었음과 아울러 경제는 전적으로 국유화되어 있었다. 소련의 국민들은 서구와 비교해서 낮은 생활수준에 머물렀고, 주거, 의료, 식료품, 기타 사회적인 서비스부문에서 기본적인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행정-명령 체제와 정치적인 요소의 과도한 억압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무력감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켰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의 특수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주의국가들의 경험을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였다.³³⁾

초기의 경우 러시아의 변화는 주로 신자유주의 이론들에 기초해서 해석되었다. 이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사용된 통화안정정책과 경제구조 조정계획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시키는 지침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신 자유주의적 접근을 러시아에 적용하는 것은 두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소비에트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 대체하는 것은 중앙통제형 경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제도와 시장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개혁의 모델은 경제구조의 해체와 창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경제개혁 이론가들이 정치영역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졌으며, 정치적인 요소를 검토하는데 소홀했다. 정치개혁이 없이 경제개혁을 진전시키려한 것은 심각한 오류였다.³⁴⁾ 따라서 포스트 사회주의 러시아의 특수성의 인식에 기반하지 않은 이론의 적용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은 사회주의체제에서 형성된 독특한 특성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의 몰락직후 나타난 새로운 요소들은 사회주의시기의 유산을 온존시켰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필요한 문명적응력들의 형성을 제약했다. 체제전환기라는 특수성은 새로운 부정적 요소들을 추가시켰다. 첫째로 아노미 혹은 가치론적인 혼돈의 확산과 규범, 가치, 확고한 규칙, 삶의 정당한 방식들에 대한 방향감각상실현상이 발생했다. 과거가 부정되지만 새로운 대체물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

33) В. В. Червяков, и др., “Россияне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е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СОЦИС*, No. 10 (Москва, 1992), p. 45.

34) Michael Mcfaul, “Why Russia’s Politics Matter,” *Foreign Affairs*, Vol. 74, No. 1 (January/February 1995), p. 88.

에서 사람들은 불확실성속에 내던져졌고 사회적인 고립속에서 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다. 둘째로 새로운 부와 권력, 위신의 획득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등장은 ‘야만적인 경쟁(brutal competition)’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경쟁체제에서의 이익은 크지만 아직 ‘게임의 규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 확고했던 내적 혹은 외적인 사회통제가 일시에 사라졌다는 점이다. 경찰력과 사법제도는 해체되고 정당성을 상실했다. 법률들이 전체주의적 기원속에서 형성되었다는 비난들이 법률의 권위를 잠식했다. 마지막으로 서구화의 추구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가져왔다. 국경이 열리자 서구의 가치 있는 생산물들보다 포르노와 마약, 야만성과 신비주의, 조직범죄와 일탈적인 삶의 방식들을 포함하는 저질의 소비자 대중문화가 먼저 들어왔다.³⁵⁾ 장기간의 사회주의가 결과한 특성들이 포스트사회주의를 규정하는 지배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이후 혼돈된 상황의 부수적인 결과들은 포스트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비적응력’들을 온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의 과정에 있어 구체제가 결과한 특성들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의 해체와 신질서의 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질서인 시장체제의 형성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을 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과정에서 국가의존적 특성에서 수혜를 입던 층들의 반발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국가의존체제와 관료적 분배체제는 개인들의 위험(risk)을 극소화시키며, 직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에 관계없이 균등한 임금정책을 보장해준다. 국가의존체제와 관료적 분배체제는 사무직노동자보다는 육체노동자에 유

35)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 6.

리하며, 서비스부분보다 중화학공업부분의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평범함과 복종이 예외적인 기술과 자질, 교육, 기업가적 능력, 혁신에 대한 동기화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존형 특성은 노멘클라투라(기생적인 소비)와 피지배계급(소비의 평등적 안정화)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저항과 혁신적인 동기화의 결여는 소련사회의 대표적인 특성이었다. 따라서 사회적인 수동성, 경제적 차별화에 대해서 무력하면서도 소련체제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했던 노동력부족현상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던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시장체제와 사유화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비숙련노동자들과 군산복합체의 숙련노동자들 역시 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체제전환기 사회의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특히 체제전환기 전략의 특성인 급진적 체제전환과 점진적 체제전환에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국가통제의 급속한 약화는 구체제의 특성인 독점화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익집단들에 의한 조합주의적 통제가 나타났다. 이들에 의한 자원분배체제의 통제는 독점화된 부분에 대한 자원의 특혜적 분배와 그렇지 못한 부분의 소외현상을 초래했다. 또한 급진적 사유화는 구체제제의 소유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은 경제의 지하경제화와 범죄화라는 지형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했다. 자율적인 경제주체들의 형성을 목적으로 했던 사유화과정에 대한 구 지배세력들의 개입은 일반주민들에게 기회의 박탈과 제약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체제전환기 사회주의국가들에 특징적인 사회적 측면이 나타난다. 체제전환기의 경제체제의 재구조화와 이에 따른 침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전면적인 약화와 실업을 야기하며, 범죄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러시아사회에 필연적인 새로운 사회분화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던 구 소련의 사회구조가 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불평등사회로 체제전환하는 과정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구 사회의 해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의 위기는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 소련체제의 몰락과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환경은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의 몇 가지 적응형태를 만들어 낸다. 첫째는 사기업과 협동조합적 형태의 생산의 합법화를 바탕으로 사적인 경제행위의 수행으로의 전환은 개혁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둘째, 제2경제형태에 대한 적응이 확산되어 있다. 사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분배체제의 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재분배체제가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 위기관리에 대한 적응형태로서 생존경제로의 복귀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국면의 발생시 생존을 위해 가족과 친구관계에 의존하거나 전통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단들에 의존하는 것은 ‘강요된 전통주의(forced traditionalism)’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적응형태는 기존의 생활수준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구체제의 특성에 매달리는 것이다.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시장경제의 도입과정에서 이미 쓸모 없게 되거나 가치가 없지만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해주는 거대한 산업플랜트와 구체제의 제도에 집착한다.³⁶⁾

36)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57~58.

이와 같은 적응형태는 결국 구체제의 특성들이 체제전환기의 적응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체제가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의 이익집단들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숙되지 못한 시민사회와 약화되어 가는 국가의 통제력사회에서 오히려 더 강화된 자율성을 획득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소련체제의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이었던 관료적 통제이외에 러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기제는 없었으며, 이들의 정점에 위치한 엘리트들인 노멘클라투라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러시아사회의 체제개혁은 경제의 하부구조만이 아니라 정치체제 및 행정-명령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관료기구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혁은 굳건한 구 관료제도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졌다. 개혁과정에서도 러시아에서 행정-명령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의 주원인이었던 관료체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민영화이후에도 경제엘리트들은 이전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지위에 큰 변동이 없었다.³⁷⁾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노멘클라투라들에게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한가지 가능성을 더 부여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음성적인 특권을 통해서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시장경제라는 이름하에 이제 이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유산자”로서 행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1990년말에 소련 공산당은 상업은행을 설립했으며, 경화를 받는 호텔을 세우는 등 러시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투기 및 금융거래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몰려있던 이들의 경제행위는 이후의 교란된 경제상황과 맞물려 커다란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당기관들의 막대한 재산들은 공산당의 지배적인 위치의 소멸과정에서 점차 당료들의 재산으로 바뀌어 갔다.³⁸⁾ 권력과 재

37) A. Ослунд, *Шоковая терапия* (Москва: Республика, 1994), p. 111.

38) B. Kagarlitsky, *Disintegration of Monolith*, 김남섭 역, 「소련단일체제의 와해」(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pp. 51~52.

산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라는 점에서는 이전과 같았지만 이제 이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3. 정치구조의 재편

러시아 정치구도는 시장경제로의 체제변환과정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의 체제변환과정은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했고, 기존구조의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및 사회적 갈등은 러시아 정치현실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80년대 중반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시작에 이어 91년부터 시행된 본격적인 개혁조치들의 결과로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급속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존체제에 충격을 가져오는 급진적 개혁시도는 러시아 사회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만큼의 파장을 가져왔다. 급격한 가격자유화에 수반되는 초인플레이션, 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침체와 사회복지체제의 축소 및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중지 등은 러시아 국민들의 실질생활을 급속히 악화시켰으며, 사회의 해체와 주변부화를 촉진시켰다. 이와 같은 개혁초기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1993년과 1995년의 총선, 1996년의 대선 및 푸틴대통령 체제의 등장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는 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도의 감소와 반 개혁 보수세력의 상대적 강화로 귀결되었다.

러시아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의 시행은 경기의 급격한 후퇴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급진적인 개혁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치인 가격자유화는 주민들의 실질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가의 계획속에서 인위적으로 결정되었던 생산물들의 가격은 가격자유화과정에서 급속하게 현

실화되었다. 가격은 시장가치에 따라서 급속히 인상되었으나, 노동자들의 급료는 가격의 현실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또한 과중한 재정부담의 해소와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 취해진 화폐량 제한조치들은 국유산업노동자들의 임금을 수개월동안 체불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화폐수단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생활수준 악화의 기본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격자유화와 재정안정화과정에서 절대다수 러시아인들의 생활이 현저하게 악화되었으며 실질소득은 급속히 하락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상당수 러시아인들의 주변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³⁹⁾

그러나 모든 러시아인들이 체제변환과정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는 않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은 구 체제에서는 가능하지 않던 새로운 기업가들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신흥 유산계급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상당수 러시아인들이 일상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러시아의 새로운 유산계급들은 서구의 부유층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계층구조의 하향이동과 더불어 상층과 하층간의 계층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주민의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소득의 차이는 이미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층분화과정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구 사회주의사회의 중간층의 전반적인 하향이동현상이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의 계층구조는 급속히 성장한 신흥부유층과 하향 이동한 구 사회주의 중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새로운 중간층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⁴⁰⁾

39) A. V.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 「시장경제의 도입과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양대 중소기업소-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제 7차 한·러 학술회의 (1996), pp. 38~39.

40) В. Головачев, “У нас есть богатые и бедные, Нет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두터운 하층과 신흥유산계급인 소수의 상층부와의 괴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개혁에 대한 최초의 정치적 평가였던 1993년 10월의 선거는 노동수입을 중심으로한 하층과 신흥유산계급인 상층이 서로 대립적인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전체적인 선거결과는 대다수 러시아인들이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혁과정의 수혜자들인 기업가들의 경우는 개혁노선의 정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⁴¹⁾ 개혁과정에서 하층으로의 이동을 강요당했던 다수층이 개혁에 비판적인 정당을 선호한 반면 개혁의 수혜자들은 현재와 같은 개혁을 지속할 정치세력을 지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격변의 과정속에서 형성된 개혁의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확보된 이후 더 이상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게 된다. 이들은 이미 형성된 자신들의 기득권의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부유층과 특권계급들은 개별적인 정치가나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러시아의 신흥특권계급들이 지리노프스끼나 전 부통령인 루즈꼬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전 총리인 가이다르와 그 밖의 친서방 급진적인 개혁주의 세력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⁴²⁾

현 러시아 정치구도의 이해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 러시아정치세력들에 관한 것이다. 이미 몇 차례의 정치적 격변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러시아의 정치지배세력들은 대부분이 구 사회주의 특

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No. 44 (Москва, 1992).

41) *Деловая жизнь*, No. 13 (1993).

42) Dimitri K. Simes, "The New Privileged Class in Russia Wants Stabilit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5. 8. 8.

권계급인 노멘클라투라들이 핵심인 구 체제의 기득권층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일반시민들과는 달리 과거의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영향력과 연줄망을 바탕으로 지배계급으로 등장했다. 구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시장체제로의 급격한 체제전환과정은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밑으로부터 건전한 경제주체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구 사회주의체제의 기득권층이 특권을 사적부분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초로 시장경제의 요소들이 도입되었던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기나 공산당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던 91년의 쿠데타 실패 이후에도 노멘클라투라들은 전체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이들은 권력에 기반한 특권을 사유재산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공산당의 단일지배체제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정치엘리트들의 대부분은 이전의 노멘클라투라 출신이었다.⁴³⁾ 따라서 일반대중들과 다르게 구 체제의 엘리트들은 사회주의체제와 강한 연속성을 보이며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분화의 상층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기 국가들의 일반적인 경험은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집단이 아니며, 이들중 상당부분이 과거 공산당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⁴⁴⁾ 이와 같은 엘리트들의 구체제와의 연속성은 개혁정책과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의 기초로 작용했다.

러시아사회의 이데올로기구성도 현 러시아의 정치구도의 이해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요소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이데올로기는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제였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급격한 해체를 가져왔고 시장경제로의

43) B. Kagarlitsky, *Disintegration of Monolith*, 「소련단일체제의 와해」 (창작과 비평사, 1993), p. 50.

44) J. Karpinski, "Sociologists Compare Nomenklatura Members and Contemporary Elites," *Transition*. No. 31, May (1996), pp. 36~37.

체제전환과정의 혼돈은 새로운 통합이데올로기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개혁을 중심으로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혼재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러시아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의 부재는 민족주의적 요소의 부활을 가져왔고 전통적인 종교적 요소도 일정정도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혁주의적 요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구 체제의 유제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도 소멸되지 않고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적 요소에 기반한 대러시아주의와 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표방하는 사회주의적 이념 등을 강조하는 정치세력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은 러시아 정치구도의 전반적 보수화하고 있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러시아 정치의 보수화는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구조적 특성들과 관련이 있다. 체제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민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위기를 해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사회주의시기동안에 배양된 국가의존적 특성은 자율적 시장체제의 도입에 비판적인 시각을 형성시킨다. 따라서 이들의 시장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시장체제의 도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개입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시장체제의 도입에 따른 경제효율성의 제고에는 찬성하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와 분배문제의 해소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규제적인 시장체제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급속한 시장체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은 시장 개혁 초기인 1990년 보다 1993년에 절반으로 감소했다. 반면 점진적이고 국가개입적 시장체제의 형성에 대한 지지는 증가추세를 보였

다.⁴⁵⁾ 아래의 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켜주는 정부의 형태에 관한 조사로서 국가개입형 정부와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서 러시아인들이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1> 국민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정부의 형태⁴⁶⁾

정부의 형태	지지율
강한 국유부문을 가진 정부로서 국민들의 정당한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	39.4%
정부의 형태보다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지도자	20.9%
경제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시행하는 정부	15.4%
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형태	12.6%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시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운동과 집단들의 반응을 야기한다. 따라서 정치적인 재편성은 자유-민주주의, 인민주의(populist), 우익 민족주의를 지형으로 발생한다.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와해과정에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주로 인민주의 특히 국가-인민주의(state-populism)형태를 띠게 된다. 사회주의체제를 경과하면서 러시아의 인민주의는 특권적 지위를 향유했던 소련의 관료제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이해되었다. 관료제에 대한 반감은 사회정의와 관료적 특권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는 종종 시장경제와 사기업에 대한 반대와 결부되었다. 인민주의는 가격에

45) А. Голов, “Россияне—за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но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регулированием,” *Известия* No. 228 (Москва: Декабрь, 1993).

46) М. К. Горшкова, *Россия в зеркале реформ* (Москва, 1995), p. 26.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장경제에서나 가능한 풍족한 소비생활을 요구한다. 러시아의 인민주의는 소련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소유를 지지하며, 사회정의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부장적 국가를 선호한다. 인민주의는 경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보다는 지식인과 부패한 관료에 대한 저항감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는 위계적인 권력과 특권, 그리고 국가주도형 사회분화체제의 정당화와 다르지 않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용과 사회적 혜택의 축소를 가져오는 가격의 자유화와 사유화에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노동조합들은 인민주의적 정서에 부흥하여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상당한 저항을 하게 된다. 인민주의는 공산당의 약화와 소련의 중앙권력의 해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한 개혁의 실행과정에서 좌파와 우익 민족주의의 반민주·반개혁 연대가 강화되어 나타났다.⁴⁷⁾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특성은 인민주의적 정서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푸틴 체제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체제로의 진행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러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러시아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동을 초래했고, 이는 현 러시아정치구도의 기본적 지형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그리고 이들 사이의 중도세력 등 다양한 세력들이 러시아의 정치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수차례 진행된 선거과정에서 보수, 좌파세력들은 러시아정치에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47)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58~59.

있는 정도의 지지도를 확보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개혁실시이후 현재까지의 러시아 정치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급진개혁세력의 약화와 보수 민족주의, 그리고 좌익세력의 강화로 특징 지워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도는 옐친 대통령을 이은 푸틴 체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지속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개혁세력과 서방에 의외로 받아들여졌던 1993년의 총선에서 친 개혁그룹인 「러시아의 선택」(15.51%), 「야블로꼬」(7.86%) 등은 약세를 보인 반면, 개혁비판세력으로 분류되는 보수그룹인 지리노프스키의 「러시아자유민주당」(22.92%), 「러시아 공산당」(12.40%) 그리고 「농업당」(7.99%)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⁴⁸⁾ 개혁 이후 최초로 실시된 93년의 총선은 급진적인 개혁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시화에 따른 반작용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특히 합리적인 정책보다는 과격한 민족주의적 선동에 능했던 지리노프스키의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최다득표를 한 것과 공산당의 선전은 이를 뒷받침한다.

소련의 단일정치체제의 붕괴이후 최초로 실시된 93년의 총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3년 러시아의 의회 선거결과의 해석에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첫번째 해석은 일련의 개혁과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전통적인 러시아 정치문화의 강화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정교와 전제정치, 그리고 민족성”과 같은 가치들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그리고 평등주의에 대한 지지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되는 두번째 해석은 93년의 선거는 그 동안 변화해온 정치문화를 지닌 유권자들의 투표경향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첫번째의 설명이 러시아의 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두번째의 입장은 러시아국민들이 시간의

48)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8 Декабря, 1993.

경과에 따라서 점차 ‘시장’지향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입장은 1993년의 선거결과가 개혁자체에 대한 회의라기보다는 개혁이 시행되는 구체적인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세번째의 설명은 93년의 선거가 러시아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학습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시장과 민주주의적 개혁에 대한 경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문화의 재구성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여론과 정부정책간의 반복적인 상호관계에 주목한다. 개혁초기의 경우 구 체제의 위기적 국면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유평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체제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결과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는 급진적인 개혁의 추진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제전환기의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의 국민들은 다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의 확대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러시아국민들에게 있어서 체제전환기의 ‘학습과정’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따라서 개혁의 결과가 개선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에 대한 지지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⁴⁹⁾

급진적인 개혁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반작용은 이후에도 약화되지 않았으며, 1995년의 국가두마 의원선거는 이와 같은 경향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선거의 경우도 현정부의 개혁조치들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던 반 옐친 세력이 승리했다. 이 선거에서 비례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하한선인 5%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공산당」(22.30%), 「러시아 자유민주당」(11.18%), 「우리집 러시아」

49) A. Whitefield and G. Evans, “The Russian Election of 1993: Public Opinion and the Transition Experience,” *Post-Soviet Affairs*, Vol. 10. No. 1 (1994), pp. 39~41.

(10.13%), 「야블로코」(6.89%) 등 4개 정당이였다.⁵⁰⁾ 특기할 만한 사실은 「러시아 자유민주당」과 「러시아 공산당」이 서로 자리바꿈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의 상당부분은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합리적인 정책개발에 실패했고 과격한 선동에 계속해서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비례의석의 배분을 통해서 157석(34.9%)을 획득한 「러시아공산당」은 결과적으로 하원의 최대다수당으로 등장했다. 「러시아공산당」은 이와 같은 유리한 입장을 바탕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과정에서 좌파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좌파세력은 하원의 과반수를 점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회에서 「러시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는 옐친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96년 대선에서 옐친이 승리함에 따라서 러시아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큰 틀속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러시아의 대선의 1차투표에서 옐친과 주가노프는 각각 35.2%와 32.3%를 획득함으로써 치열한 경합을 보였다. 3위인 레베드는 14.52%, 야블린스키는 7.34%를 획득했으며, 극우파인 지리노프스키는 5.70%를 획득하여 93년 이후 전체적인 하향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⁵¹⁾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해서 치러진 결선투표과정에서 레베드를 합류시킨 옐친은 53.82%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재선되었고, 주가노프는 40.31% 획득했다.⁵²⁾ 그러나 옐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러시아 공산당」의 주가노프의 선전이며, 주가노프 지지 투표자들이 40%에 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옐친의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급진개혁세력의 약화와 좌익세력의 입지강화, 보수, 민족주의세력의 부각으로 특징지어지는 러시아 정치상황은 악화되지 않았다.

50)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6 Января, 1996.

51) *Ibid.*, 22 Июня, 1996.

52) *Ibid.*, 10 Июля, 1996.

엘친 대통령은 1997년에 신생 러시아 출범이후 최초로 플러스 성장(0.9%)을 이룩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제난, 측근 세력들의 부패와 사회범죄 증가, 과중한 대외부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엘친은 경제 실정의 책임을 내각으로 돌려 재집권부터 퇴임시까지 5명의 총리를 교체하였으며, 현 푸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부각되었다. 엘친의 심복으로 알려진 당시 연방보안국(FSB) 국장이었던 푸틴의 발탁은 퇴임이후 자신과 정치에 깊이 관여해 온 둘째 딸 디아첸코 등 측근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엘친은 1999년 8월 푸틴을 총리로 임명하고 이후 차기 대통령 지지자로 지명하였다.

1999년 12월에 실시된 3대 총선에서 「러시아 공산당」은 113석을 확보, 의석비율 25.7%를 점유하여 원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반면 친정부성격의 「단합당」은 72석에 16.4%를 점유했으며, 중도파인 「조국-러시아당」은 67석에 15.2%를 점유했다. 반면 개혁세력인 「우파연합」은 29석, 6.6%, 「야블로코당」은 20석에 4.5%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제3대 총선 결과 국가두마 의석은 친정부·개혁파가 28%, 중도파가 15%, 좌파 및 민족주의세력이 30%, 기타 소수정당과 무소속이 28%를 각각 차지했다.

<표 2> 러시아 제3대 총선(1999년 12월) 결과⁵³⁾

정 당	득표율(%)
공산당 (좌파)	24.29
단합 (친정부)	23.32
조국-러시아 (중도)	13.33
우파연합 (개혁)	8.52
지리노프스키 블록 (민족주의)	5.98
야블로코 (개혁)	5.93

53)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99results/index.html>.

제3대 총선 결과는 엘친의 친위정당으로 선거 3개월전 급조된 단합당의 선전, 공산당 의석의 감소, 조국-전러시아당의 약세로 평가될 수 있다. 체첸전쟁의 승리 등 푸틴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급조된 친여정당인 단합당은 72석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산당은 제1당을 유지하였으나 제2대 총선시와 비교할 때 44석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정파들의 득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중도좌파 정당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99년 총선에서도 급진개혁세력의 지지도는 크지 않았으며, 의석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푸틴의 대중적 인기는 러시아인의 자긍심을 손상시켰던 체첸전쟁의 성공적 수행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에 힘입은바 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푸틴이 체제전환기 러시아인의 정서와 상실감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는 점이다. 푸틴이 ‘강한 러시아 건설’을 자신의 중심적 이미지로 상징화한 것은 바로 체제전환에 따른 러시아인의 ‘정신적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호소력을 가진 것이었다.

푸틴 총리의 총선 선전에 따라 엘친 대통령은 1999년 12월 전격 사임을 발표하고 푸틴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함으로써 2000년 3월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 이는 엘친이 자신의 퇴임이후에 대한 안전판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는 총선에서의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대권 장악을 모색하였으며, 자신의 강한 러시아론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경제난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 과학기술력의 저하, 사회범죄 증가, 연방으로부터 지역 정부들의 이탈 경향 등을 러시아 주요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대안의 골자는 상당부분 국가의 적극적 역

할의 수행에 맞추어졌다. 또한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지위 강화추구를 약속했다. 이와 같은 점에 기반, 푸틴은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였다. 따라서 푸틴의 당선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결과가 사실로 나타났다.

<표 3> 러시아 제2대 대선(2000년 3월) 결과⁵⁴⁾

후보	득표율(%)
블라디미르 푸틴	52.94
겐나디 쥬가노프	29.14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5.79
아만 툴레예프	2.95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2.70
콘스탄틴 티토프	1.47
엘라 팜필로바	1.01
스타니슬라브 고보루킨	0.44
유리 스쿠라토프	0.42
알렉세이 포드레레즈킨	0.13
우마르 자브라이로프	0.10
모든 후보에 반대	1.88

푸틴의 당선은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의 부각, 기존 보혁구도의 타파, 경제의 상대적 안정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푸틴대통령은 러시아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던 체첸을 성공적으로 공격하여 러시아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도자로서 각인되었다. 푸틴은 개혁진영에게는 ‘시장개혁의 지속,’ 보수진영에게는 ‘강한 러시

54)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00report/>

야'를 약속함으로써 개혁 대 보수라는 기존의 이념적 구도를 벗어나고자 시도했다. 또한 대선 당시 국제유가 상승 및 물가와 루블 환율의 안정 등 경제상황호전도 푸틴당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력 주자였던 프리마코프의 출마 포기과 언론매체의 효율적 활용 등도 푸틴 당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푸틴 당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제전환의 혼란한 상황에 지친 러시아인들이 젊고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푸틴의 대통령 당선은 구체적 비전과 정책보다는 엘친 및 집권세력의 집중적 지원과 체첸 군사작전 등의 단기적 인기로 크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치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집권에는 실패했으나 공산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세의 유지라 할 것이다. 공산당 당수로 대선후보였던 주가노프는 러시아 중앙지역과 지방의 경제 낙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 29.14%를 획득하여 3대 총선의 공산당 지지율을 지속시켰다. 반면 개혁론자인 야블린스키는 5.79%를 획득하는데 그쳐 급진적 개혁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실망을 확인 시켰다.

체제전환 시작이후 러시아의 선거과정에 나타난 특성인 좌익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부각의 원인은 대내적으로는 진행된 급진적 개혁의 결과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과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지위의 하락에 따라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했다. 푸틴 체제의 등장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지친 러시아인들의 잠정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계층분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은 급진적인 특성들을 지닌 것이었다. 러시아에서는 1992년 초의 가격자유화를 필두로 자유화·안정화·사유화 등의 정책들이 급진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초기의 경우 자유화와 사유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 인플레이션과 생산감소 등 부정적인 특성들이 최근까지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충격요법의 시행자들은 점진적인 체제전환으로는 복합적인 체제의 체제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이 형성될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사항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가 부족했다. 가격자유화는 초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고 이는 사회주의시기동안 주민들이 형성한 얼마간의 저축을 단 몇 주일 사이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⁵⁵⁾ 이는 이들의 저축이 새로운 사적부문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의미했다. 기업들은 가격자유화에 따라서 생산효율을 높이고 생산을 늘리는 것보다 보다 손쉬운 가격인상에 매달렸다. 사유화⁵⁶⁾는 과거의 생산관계에서 축적된 다양한 능력과 연결관계를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좌우되었

55) Н. Шмелев, “Экономика и общество,”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1 (Москва, 1996), p. 24.

56) 국유부문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적부문의 성장을 추구하는 점진적인 개혁과는 달리 러시아의 경우 국유부문의 해체와 사유화는 부의 분배와 계층구조재편성에 있어 핵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 사유화과정의 부정적 결과중의 하나는 국유산업부분의 자질 있는 계층에게 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이들을 하층 분해시켰다는 점이다 Л.А. Беляева, “Средний слой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облемы обрет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10 (Москва: Наука, 1993), p. 21.

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수년간 구조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와해와 함께 공핍화를 강요당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러시아에서 전체적인 통계조사를 통한 계층구조의 파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적 혼란상태에 기인한다. 경제의 상당부분이 지하경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합법적 경제와의 경계선상에 놓여있고, 따라서 실제수입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또한 급진적 체제개혁의 시도에 따른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사회변화도 한 원인이 된다. 동시에 체제전환기 사회의 계급·계층구조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도 러시아사회의 계급·계층구조이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계급·계층구조변화의 이해에 있어 주요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사회주의 계층구조는 러시아의 개혁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특징적 측면은 소수의 부유층형성과 계층구조의 전반적 하향화경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핍화가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게되고, 계층구조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구 사회주의체제는 두터운 사회주의형 중간층(technical intelligentsia)을 만들어 냈으며, 이들의 구분에 있어서 교육수준과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체제전환과정의 시작과 아울러 중간층의 규정에서 사회주의의 기준들은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화폐적 가치의 생산능력이라는 새로운 기준의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구 사회주의 중간층의 일부는 시장경제체제에서도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중간층은 하향 이동했다.⁵⁷⁾

러시아의 새로운 부유층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1990년대 중반의 경우 대략 230만 정도가 소위 ‘새로운 러시아인’으로 불리는 부유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의 1.6%, 약 230만명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 또다른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중 약 150만명이 4만불~12만불, 80만명이 12만불~50만불, 약 6만명이 1백만불 이상의 연소득을 얻고 있으며, 연 소득 수천만불에 해당하는 최고위층 엘리트들은 약 1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6년 5월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24%의 주민이 빈곤층에 해당하며, 이들의 임금은 월 70불 이하로, 이들중 상당수가 영양실조로 고통받을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또한 1997년초의 경우 직업을 가진 러시아인들중 10%는 월 500불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인구의 70%가 공식적으로는 월 124불 이하의 소득에 그쳤으며, 이는 공식적 평균수입인 월 168불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다.⁵⁹⁾ 개혁이후 러시아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아울러 양극화현상을 경험했다. 1991년에서 1995년까지 40%의 실질임금이 감소했으며, 부유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비율은 1990년 4.4에서 1996년 13으로 확대되었다.

57) 사회주의사회의 중간층의 전반적인 하향이동은 상층과 하층을 연결하는 중간부분이 비어 있는 특이한 소득분포도를 나타냈다. 상층과 하층을 연결하는 중간층의 존재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개혁이후의 사회, 경제적 충격은 구 체제의 중간층을 하향 이동시켜서 중간부분이 함몰되어 양극화된 형태의 특이한 소득분포도를 야기했다. В. Головачев, “У нас есть богатые и бедные, Нет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No. 44 (Москва, 1992).

58) John Varoli, “There are More ‘New Poor’ Than ‘New Russians,’” *Transition*, Vol. 2, No. 20 (1996), pp. 7~9.

59) John Varoli, “Economic Reform Casts a Long Shadow in Russia,” *Transition*, Vol. 3, No. 5 (1997), p. 9.

1995년 1월 조사는 조사자 가운데 60%가 식료품구입만을 충당하는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나타냈다.⁶⁰⁾

실질소득 감소는 사회해체현상을 심화시키고, 러시아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1987년 64세에서 1994년 57.3세로 줄어드는 등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에는 약 500~700만명의 알코올중독자, 250~500만명의 마약중독자, 300만의 떠돌이, 250~400만명의 난민 및 강요된 이주자들, 그리고 범죄층이 약 150~200만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500~2000만명(러시아인의 약 1/7)이 일탈적 행위자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는 출산율의 저하 및 사망률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후자의 요인이 1/3 정도 더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⁶¹⁾ 물론 러시아인의 사망률증가의 상당부분은 비자연적 사망의 급증에 따른 것이며, 이는 체제전환이 러시아사회에 가한 충격의 정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계층의 하향이동화 경향은 연령과 성의 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조사에서 젊은 세대(18~26세)의 6%만이 자신이 하류계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노년층(66~75세)의 36%가 자신들을 하류계층이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47%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했으며, 노년층의 12%만이 자신들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세대차이는 1991년의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체제전환이 세대에 따라 차

60) David S. Mason, Antal Orkeny, "Svetlana Sidorenko-Stephenson, Increasingly Fond Memories of a Grim Past," *Transition*, Vol. 3, No. 5 (1997), p. 17.

61) A. V.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 『시장경제의 도입과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제 7차 한·러 학술회의 (1996).

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체제전환의 충격이 노년층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⁶²⁾ 노년층의 경우 대부분 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축소와 경제침체에 따른 국가재정위기 등으로 직접적인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되며, 젊은 층에 비해 구체제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유연성이 더 훨씬 작다. 반면 젊은 층은 구 체제에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 체제의 해체과정에서도 지위의 상실을 통행서 특별한 타격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시장경제에 적응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⁶³⁾ 무엇보다 젊은 층의 교육과 경력의 대부분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축적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 체제에서 형성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여성층의 실업률 증가가 남성층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등 체제전환의 충격이 여성층에 더 크게 나타난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실업의 첫번째 상황의 도래는 기업에서 비숙련노동자와 여성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동자와 같은 비 경쟁적인 부분들을 해고 하면서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성들은 새로운 사적부분에서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제한되어 있으며,⁶⁴⁾ 따라서 전체

62) David S. Mason, Antal Orkeny, "Svetlana Sidorenko-Stephenson, Increasingly Fond Memories of a Grim Past," *Transition*, Vol. 3, No. 5 (1997), p. 19.

63) 따라서 개혁이후 새롭게 성장한 사적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994년의 말의 조사의 경우 청년층의 64% 중년층의 49%가 사적부분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반면, 노년층의 경우 이 비율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scow News*, No. 12, March 31-April 6 (1995), p. 7.

64) 구 소련체제에서 많은 여성들은 저숙련상태에서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련의 건축산업의 25%가 여성들의 육체노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다. N. Rimashevskaja, "Perestroika and

실업에서 여성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 및 여성이 가장인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시장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사회의 재구조화에 따라 모두가 희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러시아사회의 전반적인 하층분해 및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양극단사이에 새로운 중간집단이 형성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의 직업체제에 근거한 구 소련체제의 중간계급들이 체제전환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고 하향화되었는데 비해 시장체제에 근거한 러시아의 새로운 중간계급이 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러시아의 새로운 중간계급은 ‘신 러시아인’의 형성보다 현재 보다 빠른 추세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체제전환기 초기의 경우 특권에 기반한 부의 축적이 보다 용이했던데 비해서 현재의 상황은 보다 실질적인 ‘능력’의 중요성성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적 변화에 기인한다.⁶⁵⁾ 러시아의 중간계급형성에 대한 낙관적 분류에 따르면 러시아의 새로운 중간계급에는 다섯 집단이 속한다. 첫째 집단은 주로 가족단위의 사업에 근거한 중소기업가 집단이다. 둘째 집단은 백화점과 상점에 속한 중간수준의 관리층이다. 세번째 집단은 변호사, 경제학자, 회계사, 교사, 언론인, 프로그래머, 운전기사, 재단사, 마사지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집단은 성공적 산업체 및 상업체의 숙련된 기술자들이다. 마지막 집단은 추가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집단’이다. 이 분류는 또한 연금생활자의 50%와 프

Status of Women in the Soviet Union,” Shirin Rai et. al., *Women in the Face of Change* (Routledge, 1992), p. 13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기에 여성들이 실업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5) Harley Balzer, “Russia’s Middle Classes,”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2 (1998), p. 166.

몰레타리아트의 1/3이 중간계급에 속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러시아인의 약 50%가 중간계급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물론 이와 같은 분류는 상당부분 과장된 평가에 기인한 것이다.⁶⁶⁾ 러시아의 계급·계층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축적한 자슬랍스카야는 러시아의 중간계급에 대해 보다 신뢰성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자슬랍스카야는 러시아가 대체로 세가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상위집단은 시장에 적응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둘째 집단은 중간층으로서 이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아직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했으나 자신들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적응능력이 낮은 집단으로 이들은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시 공격적 성향을 나타낸다. 자슬랍스카야는 이와 같은 분류에 기초, 러시아의 중간계급은 전체의 약 1/4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⁶⁷⁾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류의 정확성을 떠나 이와 같은 러시아 중간계급의 특성 및 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는 상당부분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러시아의 체제전환과정은 동질화되었던 구 소련사회가 새로운 분화과정속에서 전반적인 하향화를 수반하는 양극화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특히 초기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체제전환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체제에 기반한 러시아의 새로운 중간계급의 형성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66) *Ibid.*, pp. 172~173.

67) *Ibid.*, p. 170.

5. 엘리트 연속성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측면이 새로운 계급구조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축적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한 일반적 이론은 아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론적인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대체로 혁명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체제전환에 있어서 구체제의 기득권층들이 신흥부유층 및 기업가 형성에 있어서 친화력을 가지는 한편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술관료적 연속성론(technocratic continuity thesis)과 권력변환론(power conversion thesis)은 사회주의와 체제전환기의 엘리트간의 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는 논의이다. ‘기술관료적 연속성론’은 사회주의체제가 전문적인 기술관료집단을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한다.⁶⁸⁾ 이 실용적인 엘리트들은 체제전환기에도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이다. ‘권력변환론(power conversion thesis)’은 새로운 엘리트가 구 엘리트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사회주의시기에 축적된 권력은 시장경제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변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적 자본이 경제적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⁶⁹⁾ 따라서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기반으로 국유재산의 획득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간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연줄과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제한된 통제력을 유사 혹은 실질적인 소유권으로 전환시킨다.⁷⁰⁾

68) Erzsebet Szalai, *Gazdsag es hatalom*(Economy and Power) (Budapest: Aula, 1990).

69) Jadwiga Staniszkis, *The Dynamics of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러시아의 경우 엘리트의 연속성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인 1993년의 정치엘리트의 83.4%, 문화엘리트의 77.7%, 경제분야의 경우 국유부분 84%, 사유부분의 52.7%가 과거 공산당의 구성원이었다. 엘친의 집권이후 엘리트구성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속 행정부와 러시아정부의 4/3이 구 노멘클라투라의 구성원이었으며 지방의 지도부는 이 비율이 80%를 넘었다. 또한 엘친 지도부의 3/1이 브레즈네프 시기부터, 또 다른 3/1이 고르바초프 시기부터 노멘클라투라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단지 10%만이 포스트 소비에트체제에서 형성된 새로운 엘리트였다. 대통령직속행정부와 지역의 엘리트들은 주로 구 소련의 정부구조로부터 기원했으며, 많은 경제엘리트들은 품소몰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⁷¹⁾

물론 엘리트의 비연속성에 주목하고 있는 부르쥬아지화 중단론(interrupted embourgeoisement theory) 혹은 구조 보상이론(a theory of structural compensation)⁷²⁾과 같은 논의들이 있으나, 이들은 엘리트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자본의 동원화의 중요성이 제한된 농촌사회에 대한 제한적 연구라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가 체제전환기의 전반적 논의로 일반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⁷³⁾

70) Akos Rona-Ta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eder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JS*, Vol. 100, No. 1 (1994), pp. 41~47.

71) O. Kryshantovskaya & S. White,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5 (1996), pp. 727~729.

72) Victor Nee,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ASR*, No. 54 (1989). Victor Nee, "Social Inequalities in Reforming State Socialism: Between Redistribution and Market," *ASR*, No. 56 (1991).

개인들로부터 소유권을 분리시킨 사회주의의 행정-명령형의 계획경제체제는 이를 실현할 복잡한 관료제도를 필요로 했다. 사유재산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소비에트 사회주의사회의 구성원들은 형식적으로 사유재산과 국가권력의 공동의 소유자로 변화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들은 국가의 피고용인일 뿐이었고, 국가는 자신의 기초 위에 통제를 위해 비대한 국가관료층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소련과 사회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권계급이었다. 계획경제와 통제체제속의 관료체제는 소련사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노멘클라투라는 이러한 체계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소련사회의 해체와 시장체제로의 급격한 체제전환과정은 ‘폴뿌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이 특권을 사적부분으로 전이시키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시켰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기 심지어 91년의 쿠데타 실패 이후에도 노멘클라투라 체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변한 것이 있다면 관료들이 권력을 사유재산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었다. 공산당의 일당독재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을 때에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관료제도이었으며, 정치엘리트들 역시 구성만 변화했을 뿐 이전의 노멘클라투라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⁷⁴⁾

노멘클라투라의 성원들은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새로운

73) Szonja Szelenyi, "Social Inequality and Party Membership: Patterns of Recruitment into the Hungarian Worker's Party," *ASR*, 52(5) (1987). Ivan Szelenyi,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Hungar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Ivan Szelenyi & Szonja Szelenyi, Az elit cirkulacioja? (The Circulation of Elite?), *Kritika*, 9 (1990).

74) B. Kagarlitsky, *Disintegration of Monolith*, 김남섭 역, 「소련단일체제의 와해」(창작과 비평사, 1993), p. 50.

형태의 지배세력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구 소련사회의 장관, 공산당수뇌부, 대학의 고위관리자, 국영기업체의 장, 정부기관의 관료 등은 기업의 설립,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의 변화 그리고 은행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스스로가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노멘클라투라들은 정부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사적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매우 급속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대략 1987~1988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상당수의 당과 콤포스몰, 그리고 정부재산이 협동조합형태의 민영화과정을 거쳤고, 이것들은 곧바로 소규모 사기업으로 다시 모양을 바꾸었다. 이 과정은 구 지역공산당 위원회의 서기나 다른 다양한 권력엘리트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이후 자신들이 곧 소유주가 되었다.⁷⁵⁾

‘지대추구(rent-seeking)’⁷⁶⁾ 개념은 개혁, 개방기의 사회주의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의 탈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해서 설명력을 지닌다. 지대추구는 시장경제의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윤추구(profit-seeking)’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독점적 지위나 정부보조의 획득 가능성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설명된다. 장기간의 사회주의체제는 일반 주민들을 소외시키며 사회주의형 기득권층(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엘리트)들에게 권력과 사회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75) О. И. Шкратан, и тд,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Мир России*, Т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p. 77.

76) 제도가 시장의 질서가 지배적인 상태에서부터 직접적인 정치적 할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모호한 상태로 접근할수록 지대추구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J. A. Buchanan, et. al.,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p. 4. 따라서 국가통제의 약화와 지배집단의 비제도적 간섭이 증가하는 체제전환기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지대추구형태가 증가하게 된다.

집중시켜 놓았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는 구 기득권층들이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인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지대추구자로 전환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지대추구행위의 전형적인 형태는 중개(arbitrage), 수입보조금(import subsidies), 정부 용자보조금(credit subsidies), 노멘클라투라 사유화(Nomenklatura privatization)이다. 노멘클라투라가 체제전환기의 새로운 경제적 지배자로 등장한 것은 이들이 사유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유기업의 자산들을 실질적인 자신들의 수중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즉 노멘클라투라들이 체제전환기 국유재산을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점유한 클렙토클라투라(kleptoklatura)로 변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엘리트의 연속성에 따른 노멘클라투라기업가들은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멘클라투라 출신들의 기업가들이 민주적인 체제에서는 기업가로 변신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능력보다는 정치적인 능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올랐을 뿐이다. 이들의 등장은 정직하고 재능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로 변신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주의 시기의 노멘클라투라와 다른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도 별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⁷⁷⁾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6. 지하경제화

러시아의 체제전환기 경제생활에 있어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는 지하경제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의 공식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요

77) Roman Frydamm et al., "Capitalism with a Comrad's Face," *Transition*, Vol. 2, No. 2 (1996), pp. 9~10.

한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이 지하경제 때문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지하경제가 러시아 '실제 경제'의 90%를 점하고 있다고 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로 신빙성이 있는 주장들에 근거했을 경우 러시아의 지하경제는 약 40~50%정도 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⁷⁸⁾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러시아인들의 경제생활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구사회의 해체를 수반하며, 이를 토대로 시장체제의 새로운 경제주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건전한 기업가 계층의 형성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새로운 기업가형성이 자질있는 구 사회주의의 중산층들의 기회를 박탈한 채, 구체제의 유산인 지하경제와 노멘클라투라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⁷⁹⁾ 지하경제와 노멘클라투라들의 신흥유산자층으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중요한 특성인 전반적인 사회해체현상 및 경제의 범죄화와 병행되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흔히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의 이해에 있어 '마피아 현상'⁸⁰⁾이 특징적인 것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피아현상은 서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특성은 러시아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78) Harley Balzer, "Russia's Middle Classes,"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2 (1998), p. 171.

79) 조한범, "러시아 사회구조변화와 사기업가 형성의 경향성," 「산업사회 연구」, 1권 1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5).

80) 러시아적 의미에서 마피아는 사회주의와 시장체제로의 체제전환기가 결과한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Handelman은 러시아 마피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러시아식 발음인 '마피야 (Mafiya)'를 사용함으로써 서방세계와 다른 점을 도출하고 있다. S. Handelman, "The Russian 'Mafiya,'" *Foreign Affairs*, Vol. 73, No. 2 (1994), pp. 83~96.

점이다. 러시아의 마피아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사회주의시기의 구조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시장체제로의 체제전환기에 놓여있다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⁸¹⁾ 19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소련경제는 광범위한 지하경제와 당료와의 긴밀한 연관관계, 그리고 뇌물 및 부패로 특징 지워졌다. 소련사회에서 마피아라는 의미는 지하경제와 당료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칭했다.⁸²⁾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폭력’은 지하세계의 범죄집단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내의 권력을 점유한 개인과 집단으로부터 행사되었다.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범죄집단들이 페레스트로이카체제하에서 새롭게 형성된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폭력행사수단으로 총기류를 사용했다. 1991년 소련체제의 붕괴시기까지 약 700개의 범죄단체가 있었으며, 이들은 대개 특정 민족이나 가족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경우 불법 차량거래에 연루된 체첸인들과 과일

81) Annelise Anderson은 역사적으로 마피아의 기원과 발전에 작용한 세 가지요소로, 첫째 국가의 통제력 내지는 합법적인 공권력의 공백과 약화, 둘째, 관료의 지나친 영향력확대, 셋째는 불법경제영역의 재정적 잠재력을 들었다. 그리고 이중에서 두번째와 세번째를 1991년 이전 소련체제의 마피아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규정했다. Annelise Anderson, *The Red Mafia*, Edward P. Lazear. e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2*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p. 347.

82) ‘마피아’라는 용어는 1865년경부터 이탈리아에서 사용되었으며, 폭력과 범죄와 연관된 영향력있는 시칠리아인이나 시칠리아 패밀리를 의미했다. 이들은 폭력과 범죄를 통해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의 경우 마피아는 도박과 고리대금업, 그리고 금주법기간중의 불법주류유통행위와 관계된 조직범죄집단을 의미했다. 1970년대 소련의 경우 마피아는 지하경제와 여기에 연루된 부패관료들을 지칭했으나, 시장체제로의 전환기인 최근 이 의미는 보다 확대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Ibid.*, pp. 340~344.

및 화초거래를 지배하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있었다. 소련체제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범죄집단들이 지하경제와 불법적 경제행위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타났으며, 범죄 특히 경제범죄가 급증했다. 또한 범죄집단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시장화 조치에 따른 새로운 목표 특히 은행과 금융업은 범죄집단에게 좋은 목표가 되었다. 1994년에 이미 대도시에서 있는 80%의 사기업들이 거래액의 10~20%를 범죄집단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및 보안관계자들은 범죄집단과 뇌물 및 부패사슬을 통해서 연결되었으며, 범죄가 관료와 보안관계자들이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확산되어갔다. 특히 1991년 공산당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국가권력의 약화는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상급기관 감독의 약화를 의미했다. 따라서 관료들의 경제분야에 대한 영향력행사와 범죄집단과의 연계관계는 강화되었다.⁸³⁾

이와 같은 점들은 러시아사회의 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지하경제화경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체제전환기의 지하경제화는 사회주의의 구조적 산물인 동시에 체제전환기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회주의 지하경제는 제2경제(second economy), 저항-경제(counter-economy), 비공식경제(unofficial economy), 평행시장(parallel market), 사기업(private enterprise)⁸⁴⁾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회색경제(gray economy), 제4부문(fourth sector)⁸⁵⁾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다. 최근에 와서 세금포탈, 규

83) Annelis Anderson, "The Red Mafia," Edward P. Lazear. e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2*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pp. 353~355.

84) G.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5 (1977), p. 25.

제의 회피, 불법고용, 국가부분피고용자들의 제 2 직업에 의한 수입, 기타 금지행위 등이 추가된다.⁸⁵⁾ 지하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 양자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그 형태와 특성은 매우 달랐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지하경제는 주로 탈세와 밀수 등 자본주의의 경쟁체제와 제도의 회피를 통한 이득의 추구라는 성격을 가진다. 사회주의 사회의 지하경제는 사회주의 행정-명령형 계획경제의 특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결핍경제(shortage economy)'에 대한 적응형태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의 지하경제는 수요와 공급간의 항상적인 불균형에 기초하고 있었다. 물자부족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핍경제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은 지하경제의 항상적인 기능화조건이었다. 사회주의경제에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계획생산 목표는 실제로는 달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수요-공급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생산물의 가격도 수요-공급의 원리에 기초한 시장가격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또한 생산물의 유통도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위적인 가격과 실제 가치간의 차이를 발생시켰으며, 공급자위주의 결핍경제체제에서 수요자들은 부족한 상품을 적시에 구매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소련사회에 일반적인 지하경제의 형태인 '스삐꼴라찌야(매점매석)'를 일상화시켰다. 공급보다 수요자가 많은 '부족상품'을 미리 사들인 다음에 실수요자들에게 국가고시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파는 '스삐꼴라찌야'는 사회주의사회의 일상화된 지하경제의 영역이었다. 이와 같은 '스삐꼴라찌야'를 통한 거래규모는 공식 통계로도 1958~1971년 기간중 정부공시 최종소비자가격의 19~

85) S. Glinkina,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p. 46.

86) *Ibid.*, p. 46.

27%에 해당했다.⁸⁷⁾ 그러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소규모의 거래행위들을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이보다 상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지하경제는 공식경제가 수행하지 못하는 시장의 기능을 일정정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족상태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인 노동자에서부터 관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사회 전부분이 관여되었던 사회주의의 지하경제는 80년대 이미 1000~2000억루블에 달하는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⁸⁾

지하경제는 형식적으로는 비합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련사회의 지하경제에 대한 분석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스삐콜라찌야(매점매석, 재판매)’이외에 비공식부분, 장부조작, 그리고 범죄성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⁹⁾ 비공식부분은 거의 합법적으로 존재하지만 공식통계에는 잡히지 않았고, 또 고의적으로 누락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농민들에 의한 생산물의 비공식적 판매이다. 개인주택의 건축과 수리, 제조품수리, 그리고 의복맞춤 등은 정부부분에는 아예 없거나 부족했던 부분으로, 비공식적 구조에 의해서만 충당되던 부분이다. 서류상의 허위보고나 작성을 통한 방법 역시 지하경제의 일부를 이룬다.

거의 모든 소련기업의 지도자들은 항상 생산원료를 충분히 공급받

87) Б. Н. Казанцев, “Частник’ в сфере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ОЦИС*, No 11 (Москва, 1993), p. 56.

88) А. В. Крылова, “Лабирингах теневой экономи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No. 12 (Москва: 1992), pp. 48~49.

89) Т. Корягина,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Анализ оценка прогнозы,”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3 (Москва: 1990).

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상부로부터의 계획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수정, 기금유용, 보유생산원료의 은닉, 생산품가격의 인상, 뇌물 등 다양한 형태의 편법이 동원되었으며, 이 과정은 공식적인 경제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장부조작을 수반했다. 사회주의체제의 기업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통제나 규제체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비공식적 관행들이었다. 이와 같은 관행들은 공식적인 규칙들에서 어긋나는 것이었으나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 소련의 기업지배인들의 전형적인 행태는 세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들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다. 기업지배인들에게 있어서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산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지배인들은 자신들이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원료공급을 요청하며, 잔여 원료를 비상시를 위해 은닉한다. 두번째는 달성되지 않은 생산목표를 달성된 것처럼 조작하는 일이다. 따라서 실제생산과 장부상의 생산과 차이가 나게 된다. 품질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키는 것도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이 되며, 재정적인 초과지출 등도 장부상에서 은닉된다. 세번째는 개별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관찰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각 개별기업의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상위부서나 은행의 관료들에게 연줄망을 통한 영향력행사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일은 블랏(БЛЮТ, blat)라 지칭되었으며, 이일을 수행하는 전문적 로비스트는 딸까치(ТОЛКАЧ, tolkach)라고 불렸다. 이과정에서 개인적 친밀관계나 뇌물이 필수적이었다.⁹⁰⁾

소련의 기업지배인들이 비공식적, 비합법적 공장관리행태를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배인들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경제적 환경

90) Joseph S. Berliner, *Factory and Manager in the USS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p. 317~318.

에 있었다. 지배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관행을 일상화해야 했다. 생산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배인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보상도 공식적인 경영관행 일상화의 이유이다. 지배인들의 비공식적 경영관행이 일상화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개별기업에 대한 통제체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통제부(Ministry of State Control)와 같은 중앙부서가 개별기업 지배인들의 비공식적 경영관행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기인했다. 국가통제부의 규모 및 전문관료가 작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기업지배인들의 비공식적 경영관행기법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개별기업 단위의 통제체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 개별기업의 회계사는 해당기업의 직접적인 피고용인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및 생산목표달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중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개별기업의 상위부서나 지역당조직들은 개별기업의 외부감시자였으면서도 개별기업의 생산목표달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에 공동운명체였다. 개별기업의 생산목표달성만이 이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지배인들의 비공식적 경영관행으로 통해서만 생산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제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들은 비공식적 경영관행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행동했다. 따라서 개별기업안에는 당비서, 회계관리자, 다른 통제요원 등이 지배인들의 비공식적 경영관행을 가능케하고 이를 묵인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얻어진 보상과 지위를 분점하는 '가족적 관계(family relationship)'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세부적 통제체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소련체제에서 지배인들의 비공식적 경영관행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행위로 자리잡았다.⁹¹⁾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지하경제의 특징은 시장경제의 체제전환 기에도 소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통제의 약화와 제도의 미비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체제전환기의 교란된 사회제도와 국가통제의 약화는 경제의 지하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경우, 특히 초기 단계에 있어서 비합법적인 지하경제행위는 자본주의 체제와 비교했을 때 더 큰 경향을 보인다.⁹²⁾

급진적이면서도 매우 모호한 형태로 진행된 사유화과정도 러시아 경제의 지하화를 촉진시켰다. 국유부문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적부분의 성장을 추구하는 점진적인 개혁과는 달리 러시아의 경우 국유부문의 해체와 사유부문으로의 이전이 사유화의 핵심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사유화의 담당자들을 형성하는 유예기간을 가지지 못했던 러시아의 사유화는 기존 소유권에 상당한 혼돈을 초래했다. 90년대 초부터 실시된 사유화과정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소유형태는 매우 모호한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국유재산에 대한 사적인 지배가 공식적인 통제치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사유화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와 특성을 지닌다.

첫째,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공산당의 영향력과 지배가 실질적으로 사라지자, 공산당의 관리하에 놓여 있던 막대한 자산은 이해집단들에 의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다는 점이다. 이 재산들은 새로운 경제 엘리트와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상업은행과 합작사업들을 포함하는 상업적 구조로 재빠르게 변신했다. 둘째, 사유화의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국가의 예산과 공공기금 등을 이용하는 것이

91) *Ibid.*, pp. 319~325.

92) R. Lotspeich, “Crim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Europe-Asia studies*, Vol. 47, No. 4 (1995), p. 572.

다.⁹³⁾ 셋째,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허용이전에 이미 1987년부터 소규모 협동조합이 허용되었으며 이중 상당수가 국유기업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국유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를 동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은 국가의 자원을 개인들의 사적소유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합법적이고 편리한 방법이었다. 넷째, 대중적인 사유화(mass voucher program)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 졌다. 1994년 7월까지 모든 공업부문과 서비스산업의 70%가 사유화되었다. 이와 같은 양적인 사유화의 성공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유화된 기업의 절반가량이 이윤을 전혀 내지 못했으며, 러시아의 공업생산력의 50%가 감소했다. 또한 국가소유체제의 해체는 경제의 범죄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⁹⁴⁾ 이들에 의해서 적합한 자산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대규모의 기업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투기과정을 거친 기업들의 주식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재판매되었으며, 이 과정

93) 러시아의 초 인플레이션하에서 연 25%의 금리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94) 바우처 사유화는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정도의 금액(1인당 만루블)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무상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서 해당금액만큼의 기업과 국유재산의 주식이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중적 방식의 사유화이다. 그러나 다음의 인용문은 이 대중적 사유화 방식의 운명을 직시하고 있다. “대부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바우처 사유화가 사유화 조치의 핵심이었다.....그러나 러시아 사유화의 실체가 보여 주듯이 사유화위원회의 국가관리들 및 “MMM-invest(바우처를 이용한 투자회사중 대표적인 회사: 필자주) 유형의 개별적 투자회사들만이 이 사유화 전표를 이득이 되게 처분할 수 있었다. 깔리닌 그라드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주민들은 사유화 전표의 현실화로부터 어떤 약속된 배당금도 받지 못했다”.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중의식구조의 변화,”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주최 제7차 한·러 학술회의(1996), pp. 37~38.

에서 막대한 이득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대중적 사유화는 대규모의 투기적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경제의 범죄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반목하는 계급과 사회집단으로 해체시켰다.

따라서 기업체 외부에 소유자들을 형성시켜서 경영진에게 외부로부터의 위험(risk)을 자극요소로 사용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했던 사유화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말았다. 오히려 51% 혹은 그 이상의 소유권을 획득한 기업 지배인들과 노동자들이 기업체 내부의 소유자로 형성되었다. 또한 소유권을 획득한 노동자들은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위의 안정성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경영의 압박요소로 작용할 수 없었다.⁹⁵⁾ 이는 구 사회주의가 만들어 놓은 기업의 지배인들이 사유화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서 잃은 것이 없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합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제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지배적이었던 사회주의시기에서부터 관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의 경우 각종제도의 탄력적인 적용은 그 자체가 막대한 이윤의 원천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는 자원분배와 인허가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00만 가량의 관료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림으로서 막대한 뇌물을 챙길 수 있다. 70%이상의 관료가 뇌물을 받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이상 그리고 상업부문 기업의 75%이상이 뇌물에 대한 강요를 경험하거나 ‘연줄’⁹⁶⁾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95) M. McFaul, “State Power,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Politics of Privatization in Russia,” *World Politics*, Vol. 47, No. 2 (1996), pp. 228~234.

96) 러시아의 기업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충성이며, 이는 상당부분 연줄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소련사회

자신들의 이윤중에서 30~50%가량을 국가관료들에게 전달한다. 정부와 은행의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40%가량이 관계된 관료들과 영향력행사의 대가로 지불되며, 석유와 희귀금속의 수출허가를 내줄 경우 수십만 달러의 해외은행 예치금과 호화스러운 별장이 선물로 제공된다. 부패구조는 또한 중요 관직의 매직, 합작회사의 설립, 국유기업과 사기업의 연합, 그리고 사기업에 유리하도록 고안된 국가자원의 투자 등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 체제전환기의 지하경제화는 범죄집단의 개입에 의해서도 촉진된다. 러시아에는 20만개이상의 범죄집단이 있으며, 5,500개는 매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들중 1/7은 매수된 관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는 범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첼라빈스크 지역의 조사에 의하면 75%의 기업가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90%가 관료들에게 뇌물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65%의 사업가들이 금융과 회계부분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있으며, 55%는 여타 부분에, 32%는 경찰관계자들에게, 그리고 27%는 판사나 검사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러시아의 범죄집단은 러시아에서의 개혁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미 35,000~40,000개의 기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이 기업들에는 400개이상의 은행과 47개의 증권거래소가 포함되어 있었다.⁹⁷⁾ 독점생산자, 부패관료, 그

의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초 인플레 현상과 시장관계가 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신뢰와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체제전환기의 러시아 상황에서 거래의 안전은 자본보다는 개인적 관계와 연줄에 더 의존하게 된다. 정상적인 형태에서 은행의 대출은 시간이 오래걸리며 대출조건도 열악하다. 그러나 은행의 주요인물을 알고 있을 경우 대출은 즉각적으로 실시되며, 매우 좋은 대출조건이 제시된다. Cristiano Codagnone, "New Entrepreneurs: Continuity or Discontinuity in Russian Economy and Societ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74~75.

리고 범죄적인 요소들을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90년대 초의 몇 년간 석유, 가스, 핵물질, 목재, 금속에 대한 불법적인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들은 국내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된 뒤 세계시장 가격으로 해외에 재판매되었다. 예를 들어 1992~1993년 사이에 석유의 20%와 금속의 1/3이 불법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유출되었으며, 이 과정은 범죄구조와 밀접한 연관하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수출중 상당량이 밀무역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상업은행들은 러시아의 범죄집단의 영향력하에 돈세탁의 주요 경로로 이용된다.⁹⁸⁾ 또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에 발생하는 일반대중들의 경제적인 곤란은 이들을 지하경제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1993년의 경우 17%의 노동자들이 월급이외의 수입⁹⁹⁾을 올렸으며, 11~18%가 매점매석에 참여했다. 이와 같은 과정 역시 뇌물과, 지하경제, 그리고 범죄적 요소의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이었다.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경제적 혼란과 제도의 미비로 사회주의 시기에 서부터 기원을 가지고 있는 지하경제를 확산시키며, 경제의 범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

97) 대략 70~80%의 모든 러시아의 사업들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부패관료들이나 범죄집단들에게 보호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1993년의 경우 61,500건의 경제범죄가 러시아에서 발생했다. C. Ulrich, "The Price of Freedom," *Conflict studies*, No. 275 (1994), p. 4.

98) 사회주의 시기중 공산당의 엘리트들은 다양한 지하경제형태를 통해서 축적한 돈을 해외의 스위스은행 등에 예치했으며 이를 서방의 금융시장에서 전환하는 형태의 돈세탁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중 조직범죄의 증가와 아울러 돈세탁도 새로운 차원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Ibid.*, p. 5.

99) 이에 관해서 한 조사는 1992년 기간중 자신의 정규적인 직업이외에 제 2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배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V. Kollontai,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the Way out* (Macmillan, 1995), pp. 383~384.

응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법률체제가 매우 모호하며, 내적으로 모순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¹⁰⁰⁾

러시아 체제전환기의 지하경제화 혹은 마피아경제현상은 건전한 시장경제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 지하경제는 전체경제의 효율성제고 및 생산적 산업기반의 창출보다는 투기적 분야에의 자본집중과 재산의 해외유출, 탈세 그리고 기타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100) Annelise Anderson, "The Red Mafia," Edward P. Lazear. e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2*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pp. 355~356.

IV. 북한변화에의 합의

체제전환기 러시아가 겪었던 경험들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들에 처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체제개혁의 과정과 경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성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기에 나타나는 경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의 주요 내용 역시 시장화와 민주화일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시장화와 민주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검토는 북한체제전환의 예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줄 것이다.

러시아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시사점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발전정도와 사회주의체제간의 상호의존성이 클수록 이를 해체하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소련과 동유럽국가들간, 그리고 구 소련연방국가들간에는 사회주의 시기동안 형성된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들은 구조적인 재조정과 안정화를 수반하는 체제변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화국간의 분업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구 소련의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국가들은 이의 해체에서 오는 심각한 혼란을 경험했다. 이 점에 비추어 이미 동구, 러시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의 시장화를 경험하고, 적응해온 북한이 체제전환을 시도할 경우 이와 같은 비용이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에서도 발전된 국가에 해당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완결성의 정도, 경제의 중앙집중화의 정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정비정도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높았다. 그리고

소유권제도의 국유화 수준도 매우 높았다.¹⁰¹⁾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결과물들은 시장경제체제와 조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비효율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체제전환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했으며, 이에 수반하여 상당한 정치, 경제, 사회적 해체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체제가 발달되어 있을수록 체제전환과정에서 해체비용이 그 만큼 더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러시아의 경우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축소는 연금생활자와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왔으며, 이는 좌파그룹의 정치적 부상의 기초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중앙집중화된 경제체제의 해체과정에서 구조적인 경기후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했다. 또한 대부분 국유화되어있던 소유권의 사유화도 상당한 문제점들을 수반하며, 단기간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의 중앙집중화된 경제체제는 해체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중앙의 배급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자생적인 경제적 자구노력과 개인들간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체제전환기의 해체비용은 사회주의체제의 와해기에 이미 나타나게 될 것이다.

러시의 경우 체제변환의 경제적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구조재편이 영향받는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급진적인 체제변환전략을 시행한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 비용은 개혁입안자들의 책임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중도좌파가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

101) 사회주의체제의 발달, 경제의 중앙집중화, 소유권의 형태, 사회주의복지체제 등의 발달정도와 경제체제변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pp. 56~57 참조.

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을 내세우며, 사회주의의 복지적 특성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된다. 1990년 이후 급진적인 시장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좌파와 민족주의 세력이 부각된 점은 이를 설명해준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사례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상당한 저해요소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스룬드(Aslund)는 구 공산주의 체제의 회복을 공산세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민족주의와 파시즘, 급격한 체제전환과정에 기인하는 사회적인 혼돈과 불안, 노동자의 저항, 실업, 궁핍화, 인플레이션 등을 들고 있다.¹⁰²⁾ 개혁에 비판적인 좌파와 민족주의 세력이 부상되는 것은 구조적인 경제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경기후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이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있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개혁의 장기적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같은 성장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완화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구체제의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들이 체제개혁의 효율성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구 노멘클라투라들은 국유재산을 자신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기반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점유한 클렙토클라투라로 변화했다. 국가와 권력핵심부가 통제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 노멘클라투라들은 개혁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했다. 노멘클라투라들은 구 공산당조직들이 가졌던 재산과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 특히 이들의 정부조직 내의 연줄망, 담당분야에 대한 실무지식, 행정적 관계에 대한 이해,

102) A. Aslund, "Reform vs. 'Rent-Seeking' in Russia's Economic Transformation," *Transition*, Vol. 2, No. 2 (Jan 1996), pp. 12~13.

그리고 집단적 친화력 등은 물질적 자원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반대중들과 다르게 구 체제의 엘리트들은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분화의 상층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개혁의 최대수혜계층으로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합법적 방법이 동원되었음은 물론이며, 이들의 행위는 부패와 연관되어 있으며, 지대추구의 성격을 띤다. 북한은 경우 차별적인 계급정책과 공산당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특권층의 영향력은 러시아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체제개혁과정은 엘리트들의 지대추구의 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제구조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서 엘리트들의 부패와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체제변혁기의 약한 국가와 관련이 있다. 구 엘리트들의 지대추구행위가 가능한 것은 포스트 사회주의의 국가가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1992년이후 러시아의 경제개혁정책들이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온 것을 설명해준다. 사회주의 국가의 장치들은 이 장치들을 실제로 만든 관료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관료들은 공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조정하는 지배자들이었다. 체제전환기에도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관철에 몰두하며, 부유한 기업가들의 등장은 권력을 가진 관료들을 광범한 부패구조와 연결시킨다. 더구나 체제전환기 사회에는 이와 같은 부패구조를 제어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서구적인 의미의 법적인 장치들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임의적인 억압이 성행했다. 체제전환기는 사회주의 체제의 독재적 통제력과 억압적인 공산당의 기능을 와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의 형성은 장시간을 필요로 했다. 규칙과 제도들은 도덕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저임금과 초 인플레이

선에 고통받고있는 관료와 경찰관들에게 뇌물수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체제전환기의 국가의 조절능력은 극도로 약화되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결정들이 소수의 관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¹⁰³⁾

따라서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체제전환이 북한에서 진행될 경우 엘리트간의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사례에서처럼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은 본격적인 체제전환과정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대추구행위와 부패, 불법적 경제행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새로운 체제에 맞게 재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개혁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적인 명령 경제체제의 해체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탈중앙화는 국가의 통제능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사회주의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들에게 경제권력이 양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탈중앙화과정은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경제화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체제의 혼란상태와 지하경제의 확산은 통제력을 가진 관료엘리트들의 비제도적 간섭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동구의 급진적인 개혁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의 성공에 있어서 민주화가 중요한 요소이며, 구 엘리트들에 의한 지대추구행위를 감시하는 효과적인 장치임을 말해주고 있다. 동구와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민주화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

103) Anders Aslund,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9 (1994), pp. 28~29.

제전환기의 국가들에 있어서 새로운 국가제도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민주적인 선거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구 체제의 국가 중앙권력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입법과 법률의 시행, 그리고 재정과 통화정책의 시행에 대한 기초적인 중앙권력의 재수립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민주적인 선거가 필수적이다. 셋째, 새로운 제도의 공고화와 지대추구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구 노멘클라투라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체제전환은 필연적으로 비용과 대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비용과 대가의 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들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적인 선거는 구 체제의 해체를 명확히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기업지배인들과 관료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확인하고 새로운 적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화는 새로운 국가제도에 필요한 힘을 부여함으로써, 구 엘리트의 권력을 해체함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구 엘리트들의 체제전환기의 지대추구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진전된 제도화는 개혁정책의 수립과 시행도 가능하게 만든다.¹⁰⁴⁾ 이와 같은 점에서 체제전환기에 정부가 구 체제의 노멘클라투라에 의해서 지배된다면, 지대추구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으며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시도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체제개혁이 중국의 체제개혁에 주는 다음과 같은 함의들은 북한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¹⁰⁵⁾ 첫째, 통계적인 정확성

104) Anders Aslund,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9 (1994), pp. 29~31.

105)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pp. 60~61.

을 지나는 것이 개혁전략의 운용에 필수적이다. 러시아의 경험은 상황을 호도하거나 나쁘게 보이는 것 모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시기에 이루어진 통계적인 거품은 체제전환기의 경기하락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독재체제는 통계상의 상당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 비경쟁적이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나타난 것처럼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한다. 셋째, 지속적인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피해야한다. 넷째, 규제체제를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한다. 충격요법식의 개혁은 시장체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체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유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소유권의 변화만으로는 효율성이 없는 독점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조화롭게 유지해야한다. 유일당체제하에서는 시장경제의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원화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체제전환과정은 사회주의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보수파들의 반발과 저항이 발생할 것이며, 전환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엘리트층들의 지대추구행위와 부패가 체제전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탈중앙화과정은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를 수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의 지하화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하경제화 현상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구조가 와해되는 기간에 따라서 양태를 달리할 것이다. 북한의 공식배급체제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하경제화는 암시장의 발달과 이에 대한 관료부패의 결탁, 그리고 전체적인 생존경제적 특성의 부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시장체제의 형성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흐름이 변화하고, 따라서 사회구조의 재편이 발생한다. 이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형성과 아울러 소외층들을 형성시킬 것이고 이들의 반발은 공산주의체제의 복구와 국가주도 경제체제 및 사회주의복지체제에 대한 회귀라는 이념적 지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양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좌파세력이 주요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체제전환과정에서 경제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고 사회적 궁핍화현상이 악화된다면 좌파의 부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 체제개혁의 함의들은 러시아의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상의 특수성도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남한의 존재는 경우에 따라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체제전환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들은 북한체제의 구조와 특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하에서만 유의미할 것이다.

V. 결 론

러시아의 체제전환기 사회변화의 이해에 있어 특징적 요소는 사회주의체제가 남긴 구조적 산물들이 체제전환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장기적 경제침체와 복지체제의 와해, 노동시장의 재편과정을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대중적인 하향이동 경향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러시아체제전환의 다소 혼란한 특성들은 정치구도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구체제의 노멘클라투라들은 새로운 엘리트로 신속히 자리를 옮겨갔으며, 새로운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노멘클라투라들은 사유화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혼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엘리트들은 체제전환과정에서 별다른 교체과정을 겪지 않았다. 노멘클라투라 엘리트들의 생존은 주로 사회적 공익을 창출하지 않고, 소수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지대추구를 동반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비용은 러시아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러시아의 새로운 중간계급형성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은 서구의 중간계급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멘클라투라 자본가의 형성은 특권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시장체제형성과정에서 영향력의 축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중간계급형성은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의 건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러시아 시장체제가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새로운 시장체제건설과정에서 지하경제가 현재와 같이 보편적 현상으로 구조화 될 경우 체제전환의 건전성과 긍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들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의 해체와 신질서의 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체제의 형성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을 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과정에서 국가의존적 특성에서 수혜를 입던 층들의 반발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들은 정치구도에 반영되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포스트 사회주의 사회의 체제전환기는 매우 복합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구조적인 특성과 이들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체제전환전략에 따라서 사회변화의 양태가 일정정도 달라진다. 러시아의 경우 급진적인 사회의 해체에서 오는 다양한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은 구 사회주의시기에 형성된 지배체제, 계급구조와 사회체제와 같은 구조적인 영향들이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의도했던 급진적 개혁의 효율성이 지연되었다. 러시아 사회의 경우 개혁으로 인한 급진적인 사회변화와 구 체제의 요소들의 지속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효율성은 러시아가 채택하고 있는 개혁전략의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구 체제의 효과적인 해체와 대안체제의 형성이 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새로운 시장환경을 형성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적 경제주체로서의 노동자와 기업가의 형성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포스트 사회주의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은 구체제에 기원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의 영향, 특히 구 지배세력들의 지대추구행위 억제와 경쟁적인 노동시장의 형성, 그리고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축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저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체제전환의 효율성이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Abalkin, L. I. *People's Well-being in the USSR: Trends and Prospect*. Moscow: Nauka, 1989.
- Aslund, Anders. *Post-Communist Economic Revolutions: How Big a Bang?*.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2.
- Berliner, Joseph S. *Factory and manager in the USS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 Buchanan, J. A. et. al.,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 Davis, H. and Scase, R. *Western Capitalism and State Socialism an Introduction*. Basil Blackwell Ltd.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울: 느티나무, 1985.
- Hausner, J., Jessop, B. and Nielson, K.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Edward Elgar, 1995.
- Jeffris, Ian.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London: Routledge, 1993.
- Kagarlitsky, B. *Disintegration of Monolith*. 김남섭 역. 「소련 단일체제의 와해」.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New Jersey: 1991.
- _____.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W.W.

- Norton, 1990.
- Lane, David.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 Sakwa, R. *Soviet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89.
- Staniszki, Jadwiga. *The Dynamics of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Szalai, Erzsebet. *Gazdsasag es hatalom(Economy and power)*. Budapest: Aula, 1990.
- Szelenyi, Ivan.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Hungar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 Szelenyi, Ivan. and Szelenyi, Szonja. “Az elit cirkulacioja? (The circulation of elite?)” *Kritika* 9, 1990.
- Walder, A. *Communist Neo-tradition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 Winiecki, J. *Resistance to Change in the Soviet Economic Syste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2. 논문

- 오스트롭스키, A. V.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 『시장경제의 도입과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양대 중소기업연구소-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제 7차 한·러 학술회

- 의, 1996.
- 조한범. “러시아 사회구조변화와 사기업가 형성의 경향성.” 『산업사회연구』1권 1호. 한양대 출판부, 1995.
- _____. “이행하는 사회주의.” 박길성 외. 『현대사회』. 서울: 나남, 1996.
- Anderson, Annelise. “The Red Mafia.” Edward P. Lazear.(ed.).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2*.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 Aslund, Anders. “Lessons of the First Four Years of Systemic Chang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9, 1994.
- _____. A. “Reform vs. ‘Rent-seeking’ in Russia’s Economic Transformation.” *Transition*. Vol. 2 No. 2 (Jan. 1996).
- Balzer, Harley. “Russia’s Middle Classes.”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2, 1998.
- Calvo, G. and Frenkel, J. “Credit Markets, Credibilit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 Codagnone, Cristiano. “New entrepreneurs: Continuity or discontinuity in Russian economy and society?” Bruno Grancelli(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 Csaba, Laszl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 Fischer, S. and Gelb, A.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 Frydman, Roman. et al. “Capitalism with a Comrad’s Face.” *Transition*. Vol. 2, No. 2, 1996.
- Glinkina, S. “The Shadow Economy in Contemporary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34, No. 2, 1996.
- Grossman, G.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5, 1977.
- Handelman, S. “The Russian ‘Mafiya.’” *Foreign Affairs*. Vol. 73, No. 2, 1994.
- Karpinski, J. “Sociologists Compare Nomenklatura Members and Contemporary Elites.” *Transition*. No. 31, May, 1996.
- Kollontai, V. “Social Aspects of Economic Reform in Russia.” *Eastern Europe in Crisis and the Way Out*. Macmillan, 1995.
- Kryshatanovskaya, O. and White, S.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5, 1996.
- Lipton, D. and Sachs, J. “Creating a Market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 Economic Activity*. No. 2, 1990.
- Lotspeich, R. "Crim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Europe-Asia Studies*. Vol. 47, No. 4, 1995.
- Mason, David S., Orkeny, Antal and Sidorenko-Stephenson, Svetlana. "Increasingly Fond Memories of a Grim Past." *Transition*. Vol. 3, No. 5, 1997.
- McFaul, Michael. "State Power,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Politics of Privatization in Russia." *World Politics*. Vol. 47, No. 2, 1996.
- _____. "Why Russia's Politics Matter." *Foreign Affairs*. Vol. 74, No. 1, January/February 1995.
- Mckinnon, R. "Taxation, Money, and Credit in a Liberalizing Socialist Economy,"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 Murrel, Peter.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 _____.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
- Nee, Victor.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ASR*. 54, 1989.
- _____. "Social Inequalities in Reforming State Socialism: Between Redistribution and Market." *ASR*. 56, 1991.
- Pei, Minxin.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 Rimashevskaja, N. “Perestroika and Status of Women in the Soviet Union.” Shirin Rai et. al., *Women in the face of change*. Routledge, 1992.
- Rona-Tas, Ako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eder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JS* Vol. 100, No. 1, 1994.
- Sachs, J. and Lipton, D. “Poland’s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 69, No. 3, 1990.
- Sachs, J. and Woo, Wing Thye. “Experiences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 Simes, Dimitri K. “The New Privileged Class in Russia Wants Stabilit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8. 1995.
- Szelenyi, Szonja. “Social Inequality and Party Membership: Patterns of Recruitment into the Hungarian Worker’s Party.” *ASR* 52(5), 1987.
- Sztompka, Piotr.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 Ulrich, C. “The Price of Freedom.” *Conflict Studies*. No.

- 275, 1994.
- Varoli, John. "Economic Reform Casts a Long Shadow in Russia." *Transition*. Vol. 3, No. 5, 1997.
- _____. "There are More 'New Poor' than 'New Russians.'" *Transition*. Vol. 2, No. 20, 1996.
- Whitefield, A. and Evans, G. "The Russian Election of 1993: Public Opinion and the Transition Experience." *Post-Soviet Affairs*. Vol. 10, No. 1. 1994.
- Woo, Wing Thy.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 Zaslavsky, Victor.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3. 러시아어 자료

- Абалкин. "Что мешает реформе?"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апрель, 1990.
- Беляева, Л. А. Средний слой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облемы обрет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сква: Наука, No. 10, 1993.
- Борисов ЭФ.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оциальн о политический журнал*. No. 3. Москва, 1993.

- Весельков, Ф. С.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 Восленский, М. *Номенклатура*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и Октябрь, 1991.
- Головачев, В. У нас есть богатые и бедные, Нет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Москва. No. 44, 1992.
- Голов, А. Россияне—за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но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регулированием. *Известия*. No. 228. Москва: Декабрь, 1993.
- Горшкова, М.К. *Россия в зеркале реформ* Москва, 1995.
- Джилас, М. *Лицо тоталитаризма* Москва: Новости, 1992.
- Казанцев, Б. Н. “Частник” в сфере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ОЦИС*. No 11. Москва, 1993.
- Корягина, Т.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Анализ оценка прогнозы.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3. Москва, 1990.
- Крылова, А. В. Лабиринтах теневой экономи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No. 12. Москва, 1992.
- Ослунд, А. *Шоковая терапия* Москва: Республика, 1994.
- Червяков, В.В. и др., Россияне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е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СОЦИС*. No. 10. Москва, 1992.
- Черников, Г.П.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кто он?*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2.
- Шкратан, О. И. и тд,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Мир России и*. Т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 Шмелев, Н. Экономика и общество //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1. Москва, 1996.

4. 인터넷자료

“The Concept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http://sun.nilb.ee/undp/nhdr/CHI.html>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00report/>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99results/indexl>